

우리문화



특집 | 21세기 블루오션 '전통문화'

인터뷰 |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이끌고 프랑스 다녀온 이동희 안성시장

여름사냥 | 성웅 이순신의 발자취를 찾아서

2005 _ 7.8

VOL. 177

전국문화원연합회



여름의 끝자락. 무더위가 山寺 어귀를 빠져 나가고
산들산들 풍경소리 들려온다. 이제 우리를 돌아볼 때다.

『광복 60년주년 경축식』 진실·화해·평화·희망의 축제로 열려



광복 60주년 경축식이 진실과 화해, 평화와 희망, 미래와 세계를 주제로 8월 15일 아침 9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 화합축제로 열렸다. 김국주 광복회장 등 광복회 회원과 유가족, 노무현 대통령 등 3부 요인, 황우석 서울대 교수, 어린이 대표 등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광복 60주년 경축식은 다양한 영상과 무용으로 꾸며진 퍼포먼스와 동북아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는 '겨레의 새 빛 점등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비상의 축제로 이어진 식후행사에서는 댄스가수 신화와 동방신기, 트로트 가수 장윤정과 나훈아, 학, 신해철, 힙합 디제이 덕 등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장르별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축하의 무대를 펼쳤다.

제2차 문화체험프로그램 공모 3.5 대 1 기록

최근 문화관광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실시한 제2차 지방문화원 중심 문화체험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 경쟁률이 3.5대 1을 기록했다. 소외 계층에 대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방문화원 고유의 독창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는 역사문화유적탐방, 예술체험, 생활문화, 전통문화, 자연생태 체험, 예술문화기행, 기타 문화체험등 7개 분야에 걸쳐 실시돼 지회 및 문화원으로 부터 접수된 총 339개 프로그램 가운데 97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이 중 생활문화 부문은 48개 프로그램이 신청한 가운데 10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4.8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예술문화 기행이 14개 프로그램이 신청해 7개 프로그램



이 선정되는 등 2대 1의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문화원 별 심사가 아닌 프로그램 별 심사로 진행됐으며 문화전문 기획자의 참여를 가능토록 했다. 심사는 각 부문별 프로그램을 4등급으로 차등 분류한 뒤 상위 2등급을 2인 1조로 교차 심사해 공정성을 유지했다. <프로그램 부문별 선정 문화원은 52면>

해외홍보원, 한국관련 외국어 간행물 목록집 “2005 Intro Korea” 발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간한 외국어로 된 한국 관련 간행물을 국내외 이용자들이 찾아보기가 한결 쉬워졌다.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외국인 대상 한국소개 간행물 목록집인 “2005 Intro Korea”를 발간하고 정부대표영문홈페이지인 코리아넷(www.korea.net)에 전자책(e-book) 및 PDF 파일형태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이 목록집을 통해 외국어로 작성된 한국관련 자료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전통문화콘텐츠 박물관, 안동에 전국 최초로 건립

전통문화자원을 디지털로 원형을 복원해 입체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체험하는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이 전국 최초로 안동에 들어선다. 경북도에 따르면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은 모두 65억원이 투자되며 오는 2007년 5월 준공 될 예정이다. 안동시 동부동 전통문화공원에 들어서게 될 박물관은 지상 1층은 안동문화원 건물로 사용되며, 지하 1층에는 전시관, 사이버체험관, 향토음식관, 입체영상관, 관광정보 안내관 등 콘텐츠 박물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 집

21세기 블루오션 ‘전통문화’

04



인터뷰

남사당 배우덕이 풍물단 이끌고
프랑스 다녀온
이동희 안성시장

22



사랑방

외국인에게 선물하기에 ‘안성맞춤’

안성 유기

26



해외문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빛나는

거대한 시간창고

36



여름사냥

옥포에서 노랑까지
亂世에서 救國까지

62

Contents

July · August 2005 _ Vol 177

4	특집	21세기 블루오션 '전통문화'
18	문화르포	내가 '원조' 네가 '짜퉁'
22	인터뷰	남사당 배우덕이 풍물단 이끌고 프랑스 다녀온...
26	사랑방	외국인에게 선물하기에 '안성맞춤' 안성 유기
32	뒷마루	독특한 우리문화 '촌수'
33	시 한편	장터에서
34	화보	어촌풍경
36	해외문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빛나는 거대한 시간창고
42	해외문화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 연수를 다녀와서
50	문화뉴스	제2차 우수 프로그램 부문별 선정 문화원 등
58	지역따라 노래따라	산장의 여인
62	여름사냥	옥포에서 노랑까지, 亂世에서 救國까지
68	책꽂이	악인열전 등
72	성과 로맨스	"사랑한다면 나이를 묻지마라" (上)

• 표지사진

안성 남사당 여름산이 박지나 양이의 줄 타는 모습과 상모돌리기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집

21세기 블루오션 '전통문화'

Blue Ocean

- 01 우리 민족의 Image와 Style을 팔자!
- 02 유럽진출 5년만에 공예품 130만불 수출
- 03 해외 수출용 문화상품은 "그네들 입맛에 맞게"

우리 민족의 Image와 Style을 팔자!

문화산업 시대의 블루오션(Blue Ocean)은?

최근 들어 블루오션(Blue Ocean) 사업전략이라는 말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많은 사업자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레드오션(Red Ocean : 우리말로 '피바다')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독특한 방식과 새로운 사업개발로 미개척시장을 개척, 선점하여 높은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21세기는 IT 산업과 문화산업의 시대라고 한다. 제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나라에게는 성장의 가능성이 무궁하다고 하겠다.

모든 국가가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지역문화산업 개발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과 IT 기술에 기반 한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발굴에 힘을 경주하고 있다. 자국의 지역 특성을 살리는 지역문화사업(관광사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은 이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와 같이 추앙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 높은 시장에서 블루오션은 존재하는가? 다른 경쟁자들과 치열한 경쟁 없이 독점적인 시장 개척과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곳일까? 문화사업에 있어서 블루오션이 있다면 그 곳은 아마도 전통문화 사업일 것이다. 전통문화는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긴 역사동안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축적된 문화적 정신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다른 민족은 타 민족의 전통문화를 모방하거나 생산

해 낼 수 없는 것이다. 전통문화는 그 자체로 사업적인 경쟁력을 지닌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과 자국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적 Image와 Style이 있으며,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Image와 Style을 상업화하는 것이 전통문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Image와 Sty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통문화사업은 특정한 상품을 산업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포괄적인 인상을 동시에 산업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현대 시대는 상품의 소비시대가 아니라, 이미지, 의미, 가치의 소비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전통문화산업을 우리민족의 Image와 Style을 산업화한다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개념일 수 있다.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유형 상품의 판매에서 한걸음 나아가 무형적인 우리 민족의 이미지와 스타일을 상품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미지와 스타일을 상업화할 수 있을까?





전통문화의 보존과 산업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전통문화 산업의 영역이 매우 넓으므로 필자는 범위를 좁여서 전통공예를 예로 설명해 보겠다.

우리 전통의 멋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고 다른 분야에 비해 상품화가 용이한 분야이다. 우선 중요한 과제는 전통공예가 맥이 끊이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보존 정책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경제적인 논리에 관계없이 민족문화의 보존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보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혹시 전승이 끊어진 우리 전통문화가 있으면 연구하여 복원해야 한다. 앞으로는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문화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문화 예술은 적극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산업화방안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전문 사업자들을 통해 진흥되어야 한다. 먼저 전통공예 기능보유자들은 전통의 기법을 활용한 원형(Prototype)을 제공한다. 그리고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작품성과 제품의 질을 관리하면 된다. 이에 산업화하는 업체는 제시한 이에게 일정부분의 로열티를 지급하면 된다. 사업자는 이 원형을 가지고 상품화와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고수의 창출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제품의 디자

인 개선, 홍보, 포장개발, 마케팅은 유관분야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물론 전통적인 공예와 산업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 국가와 관계기관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전통과 산업화가 매칭(Matching) 될 수 있도록 연결자의 역할과 정책적인 산업지원책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전통문화 상품이 제품화 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양성한 후 상업화 하게 함으로서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품 개발부터 생산, 포장, 마케팅, 시장 형성까지 일관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또 관광 상품화의 특징은 단가가 낮은 기념품 정도의 판매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은 관광지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가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상설 매장과 전시관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에 우리 공예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도 중요하다. 사실 전통의 방식으로 제작된 우수한 전통공예는 상품이라기보다는 예술품에 가까운 작품이다. 당연히 고가로 판매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정부기관에서 관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정량 우리 전통문화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해외 외빈이 왔을 때 의전용 선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 상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홍보라 생각한다. 고가의 전통공예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가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명품의 마케팅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서구사회의 미술품이나 우수한 공예품의 판매방식과 같은 경매 또는 상설 갤러리를 통한 작품판매를 통해 고가로 작품이 거래 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지금 해외에는 동양의 우수한 정신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자하는 상류사회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에 고가의 전통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가능하다면 정책적으로 헐리우드에서 제작되는 영화에 우리 전통문화가 자연스럽게 노출 될 수 있도록 PPL(Product Placement : 특정 상품을 영화속의 소도구로 이용해 일종의 광고효과를 노리는 것)전략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 영향력 또한 막대하다. 자연스럽게 몇몇 명사들이나 문화지배력 있는 자들이 구매하기 시작하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우리도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더 큰 힘을 기울여야한다. 산업화에 신경 쓰기에 앞서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이 먼저 홍보되어야 그 영향력으로 인한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한류열풍에 의해 형성되는 파급효과를 생각해 보자! 전통문화 역시 다르지 않다. 한국문화를 사랑하게 만들면 한국전통문화를 구매하는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함께 팔아야한다.

우리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세계인의 생활속으로...

최근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 가장 크게 성공한 문화·관광 상품 예가 ‘반지의 제왕’이 제작된 장소인 뉴질랜드의 경우이다. 이 영화를 통해 뉴질랜드에 대한 광고효과가 4,8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FP통신).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무려 38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비추어진 뉴질랜드라는 자연적인 환경이 보여준 뉴질랜드의 이미지가 형성한 경제적 가치인 것이다. 비슷한 예로 미국 상류사회에서는 일본음식인 초밥(쓰시)집에서 회합을 하는 것이 상류사회의 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또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이 한인교포 방송국을 통해 방송된 뒤 이를 본 미국인들의 한국 궁중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인들이 초밥이나 한국 궁중음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즉 일본 스타일과 한국 스타일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의 노출을 통한 트렌드 형성이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근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킬빌’, ‘라스트 사무라이’, ‘스타워즈’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일본의 전통문화, 정신문화, 사무라이(武士)적 전통이 자연스럽게 투사된 영화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하나 같이 직간접적으로 사무라이의 칼이 등장하며 일본의 역사와 전통, 정신문화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화들이 상영된 뒤 일본에 대한 이미지의 상승과 일본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을 것은 분명하다. 또 그에 따른 관광수익과 일본 전통공예품에 대한 소비 또한 외국에서 자연스럽게 촉진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문화에 대한 트렌드와 일본 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전통 공예품인 일본도(日本刀)의 수집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매우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전통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전통공예를 바탕으로 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해외 관광객의 유치는 한국의 이미지와 스타일이 어떻게 홍보 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또 관광 상품 또한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구입하는 물건은 대부분 소품에 불과하다. 어느 누구도 한국에 관광하러 와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 많은 한국의 전통문화 상품을 팔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해외시장 개척과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고취와 한국 스타일에 대한 트렌드와 붐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지금이 오히려 호기 일수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자신들이 봉착한 서구사회의 정신적인 한계들을 동양의 정신과 문화를 접목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Well Being Boom과 함께 친환경주의와 자연친화적인 트렌드가 강하게 형성되어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양적인 문화와 전통에 매우 합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사회적,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상류 사회에서 관심을 더욱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트렌드를 이미 빨리 파악하고 영화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자국의 전통문화를 노출시켜 미주 지역과 유럽에서 재팬 스타일(Japan Style)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전통문화와 일본의 정신문화가 자연스럽게 서구사회와 세계로 홍보되고 있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자국의 이미지와 스타일이 서구사회에서 뿌리내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글로벌 기업 SONY는 미국에 세계적인 대형 영화 제작 스튜디오 2개를 인수하여 영화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영화에 당연히 일본의 전통문화와 정신이 투여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스타일이 상류사회나 문화지배력을 가진 계층에 뿌리내리면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한 이미지 상승과 이와 관련된 상품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바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

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더 많은 유·무형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에 비해 전통문화의 보존과 개발이 많이 뒤쳐져 있다. 그들은 일본 전통문화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문화의 스타일과 일본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세계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막대한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전통문화가 자연스럽게 서구사회와 해외에 스며들도록 일본스타일을 전략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전통문화를 보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문화의 보존이 시급하다.

이것은 경제적인 이익에 무관하게 민족적인 정체성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내의 시장형성에 투자해야한다.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소비하고자하는 주요한 트렌드 형성과 이미지 강화를 통한 한국문화 스타일을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다. 상품화는 시장이 형성될 때 가능한 일이다. 시장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잘 팔리는 물건을 먼저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먼저 우리문화의 스타일을 홍보하고 팔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것에 대한 수요가 형성될 것이다.

글 _ 김기상 | (재) 한국전통무형문화진흥재단 이사장

유럽진출 5년만에 공예품 130만불 수출

- 한지(韓紙)가 정말 천년을 가나요?
- 칠기(漆器)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잡균이 침범을 할 수 없나요?
- 내복(內服)에 황토로 물을 드려 입으면 피부병이 없어지나요?
- 유기(鍮器)는 나쁜 독(毒)을 없애준다는데 사실입니까?

필자가 2000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프랑스의 파리, 다중, 보르도, 스트라스 브르, 쟁제르망 앙래, 노르망디 루앙, 낭시를 비롯해 벨기에의 블랑켄 베르그, 쥐앵켄케르크, 간쇼렌, 브뤼셀, 네덜란드의 호르쿰시, 이태리 밀라노 등지에서 17회에 걸쳐 공예문화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통역으로부터 받는 질문 내용들은 대개 이러한 것들이 많았다.

유럽인들은 아직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중국의 일부, 아니면 일본의 지배국 정도로만 알고 있는 유럽인들도 허다하다. 어찌 보면 우리도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일 거라고 생각하면 다소 위안이 될까?

이렇듯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 우리 공예품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아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며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필자가 2000년 9월 「한국 공예문화의 유럽 진출을 위하여!」란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심영미, 김혜란, 최원주 등 공예인

11명이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2000 한국공예문화상품 특별전」을 개최한 것을 시발로 하여 프랑스 전역과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니며 중점적으로 국제박람회에 참가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가슴속 깊이 뼈저리게 파고든 내용들을 곱씹어보면 이런 것들이다.

- 중국이나 베트남 보다 잘 사는 나라냐?
- 지금도 길거리엔 거지들이 즐비하고 6.25전쟁 참화 후유증이 크다는데….
- 중국의 어느 성에 속하느냐?
- 남쪽이나, 북쪽이나?
- 이번 전시 되고 있는 공예품들이 정말 한국 것 이내 당신이 직접 만들었나?
- 한국은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유럽으로 여행을 오는 졸부들은 부정부패로 얻은 재물이 많다고 하는데….

대개가 좋지 않은 부분들 뿐이었다. 어느 때는 한국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유럽인들을 한대씩 쥐어 박아주고 싶은 충동마저 느낄 때가 많았다. 참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모르고 있어도 너무나 모르고 있으니….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공예품들에 매혹되어 전시 때마다 단골로 찾아오는 (파리국제박람회의 경우 5회 연속 참가) 유럽인들과 어울리며, 우리 공예품들



• 프랑스 다중 국제박람회, 한국관에서 골무를 보며 좋아하는 프랑스 꼬마들



의 정교함, 세련됨,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하는 참가국들의 공예인들을 보면서 다소나마 위안을 삼아야만 했다.

특히 2005년 6월 프랑스 낭시 국제박람회에선 프랑스 전국의 국제박람회 조직위원장 20여명과 스탭들이 한국관을 찾아와 격려와 위로를 해주었다.

그리고 벨기에 박람회 조직위원회측이 2006년 10월 벨기에 「예술품 박람회」에 한국을 주변국으로 초청하고 싶다며 관련 자료를 건네 줄때는 정말이지 얼마나 고맙고 기뻐던지...

우리들이 지난 5년 여 동안 유럽지역을 순회 전시하면서 가장 서글펐고 감정에 복받쳐 눈물이 이렇거렸던 때는 입양아들을 대할 때였다.

친절하고 고맙기만 한 유럽의 부모들 손을 잡고 한국관을 찾은 그들은 자신들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듯 너무나도 쾌활했고 명랑했고 당당했는데 그들이 우리 공예관에 놓여진 골무, 합죽선, 색동저고리, 태극기, 자개보석함 등을 매만지며 소리없이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곤 할때였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 땅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광경일 것이다. 아무리 감정이 여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공예품을 매만지며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필자가 1980년대 일본의 동경, 오사카 국제박람회에 참가한 이래 가장 다양하고 규모있는 범위로, 해외시장을 진출하고 있구나 하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게 아니었다.

망해가는 조선의 황제이신 「고종실록」에 보면 1893년 미국 공사 박정양으로부터 미국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종이 윤허하여 참가한 시카고 만국박람회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이 최초의 한국공예 해외 나들이로 기록되고 있다.

그해 5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시카고 만국박람회를 마치고 귀국한 정경원(鄭敬源:대표)은 경복궁에서 고종황제께 전시회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였다.

***임 금 :** 우리나라 물품들 중에서 미국인들은 어떤 것들을 가장 좋아하더냐.

***정경원 :** 음악 악사 10명과 우리 토산품 83개 상자 분 등을 가지고 전시 활동을 하였는데 주로 무명피륙, 밭, 나전(자개)장롱, 자수병풍 등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임 금 :**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떠하였고 박람회 참가에 대한 성과는 좋았느냐, 미국의 대통령은 몇 번이나 만났으며, 그들의 접대는, 팔고 남은 물목은, 뒤 처리는... 등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수 차례 반복하여 물으셨다.

***정경원 :** 박람회장내에 조선식 가옥으로 조선관을 세우고 지붕엔 기와를 입혔으며 일부 물목은 시카고 Field 박물관 등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 프랑스 전국 20개 국제박람회 조직위원장 등이 한국관을 찾아왔다.



이후 두 번째로 한국공예품은 1900년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장 내에 경복궁을 그대로 본딴 건물을 짓고 전시, 판매되었는데 이곳엔 네덜란드 화가 휴버트 보스가 그린 <고종황제 전신상>도 함께 전시되었다고 한다.

고종황제계선 미국전시 이후 프랑스 파리 만국 박람회에 다녀온 부원(副員) 민병찬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보고를 받으셨다.

*민병찬(閔丙瓚) : 조선관엔 서책, 금박목조불상, 나막신, 부인용 각종 신발, 보석류, 금실 박힌 향로, 도자기, 칠보공예품, 약기, 유기, 나전칠기 등이 전시되었는데 물건의 품질이 좋지 않아 값을 매길 수가 없고 팔리지도 않아 파리인근 박물관 등에 기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 2001년 프랑스 보르도국제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찾은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 2004 프랑스 국제박람회에서 베르트랑들라노에 파리시장과 김혜란 회원의 기념촬영.



1893년과 1900년 미국, 프랑스 두 곳의 전시 결과를 보고받은 고종황제는 우리 공예품(민예품)들의 낙후성을 크게 통탄하고 1902년 각종 공예의 진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상설 박물관 사무소와 진열관을 정부 조직 내에 설치하였고, 1907년 서울 이화동에 관립 공업전습소를, 1908년에 한성 미술품제작소(한·일 합방이후 이왕가 미술품제작소로 변신)을 세워 공예 중흥을 꾀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공예문화는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는 「조선인에 의한 일본인의 공예로」 해방이후 현재까지는 「한국인에 의한 서양인의 공예 문화」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음은 공예인의 한 사람으로서 땅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통곡을 해야 할 일이다.

이렇듯 고종황제께서 우리공예문화를 전 세계로 진출시키려고 시도한지 여 100여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필자는 많은 공예인들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희망찬 한국공예문화의 유럽진출」에 나서고 있으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

2005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프랑스 파리, 낭시 두 군데의 국제박람회에선 130여 만불 어치의 수출실적을 쌓았는데 이는 수공예분야에선 가장 많은 액수의 수출고를 올린 것으로서 분명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질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문화와 예술의 선진국이라는 유럽을 순회 전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음을 본인을 비롯해 동참한 공예인들은 느끼고 있으며 한국공예문화의 꾸준한 유럽진출을 위해선 다음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크게 참고 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지 참여 경험에 따른 결론)

1. 우리의 전통공예는 세계시장에서 그다지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고유의 기술, 기법, 재료 등을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의 공예품 제작에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불연재 화한 한지 스텐드, 다양한 색상의 한지, 자개가 놓여진 손거울, 콤팩트, 고양이, 강아지용 목걸이, 민속그림의 손지갑, 동전지갑, 감성적인 소리의 종, 징, 자개보석함, 핸드폰 걸이화한 매듭, 책갈피, 오방색의 고양이, 물고기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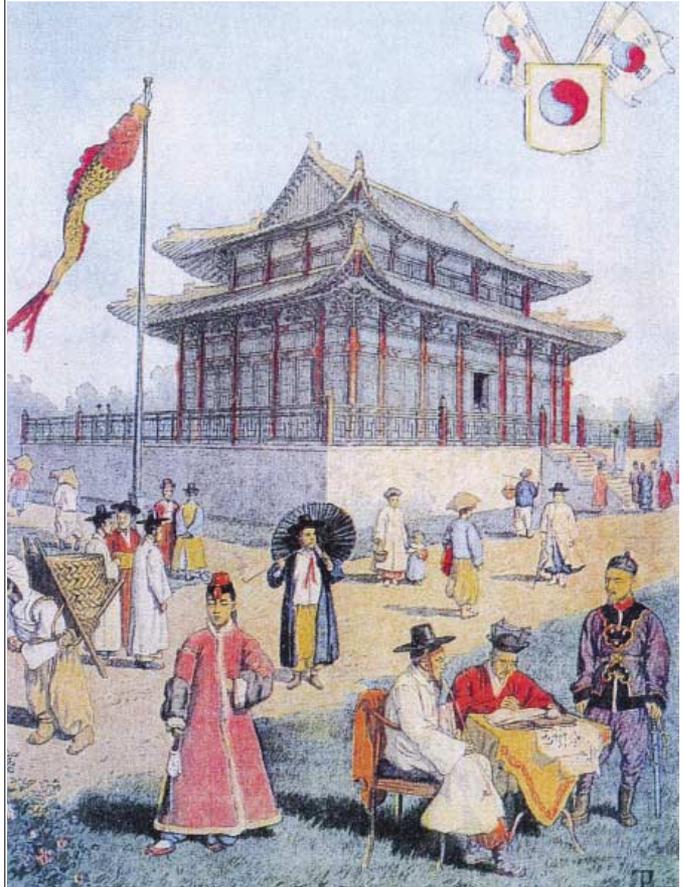


수 놓여진 골무, 골무를 이용한 여성용 허리 띠, 골무를 이용한 머리끈, 장식용 액세서리, 밝고 실용적인 자개류, 한국건축을 주제로 한 엽서, 소형 합죽선, 가벼운 주머니, 색동치마 저고리, 한국 전통인형, 천연염색 등은 시장성이 매우 높다.

2. 도안에 있어서 우리의 사군자, 십장생 등은 동양권에서는 매우 선호하나 유럽인들에겐 생소하여 별로 반기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그들에겐 고양이, 강아지, 물고기, 식물류(꽃, 풀 등 자연)의 문양과 디자인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유럽으로 진출할 경우)

3. 정부 당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가장 진하게 배어있는 민속공예의 해외진출 전망은 매우 밝으므로 끈기 있고 애정어린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고 본다. 즉 현지통역, 물품운반, 장소, 부대행사, 관련인사 초청 경비 등에 대해 타분야 보다는 좀더 우선하고 좀더 풍부하게 지원하는 것에 따라 한국공예 문화의 해외진출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

- 1900년 4월 개최된 파리 만국박람회에 세워졌던 한국관의 모습을 담은 프랑스의 주간 화보지 『르쁘티 주르날』, 태극기, 지계를 진 점판 등 당시 한국인의 모습을 담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형견 잉어, 일본식 우산 등을 그려놓아 일본의 풍물과 혼돈한 모습도 보여준다. 이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한국관이 독립관으로 세워졌다.



끝으로 한국공예문화의 해외진출을 위해선 진출하고자하는 국가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공부하고 체험한 실질적인 시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국가마다 다른 관련법(세법, 노동법 등)에 대해서도 현지인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본다.

글 _ 이철용 | 사단법인 한국공예예술가협회장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Special Issue 03

해외 수출용 문화상품은 “그네들 입맛에 맞게”

문화가 곧 국가 경쟁력이다

한 나라의 문화는 곧 그 나라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한 나라가 지닌 문화와 그에 대한 세계적인 인지도는 곧바로 그 나라의 경제적인 부와 직결된다.

이제는 문화가 곧 하나의 상품이고 또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가늠할 때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인지도를 살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은 지금 자국의 문화를 알리려고 무진 애를 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문화를 홍보하고 전파하기 위해 민관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오고 있다. 월드컵과 올림픽을 개최하고, 다양한 엑스포와 영화제를 열고, 또 각종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때로는 해외로 직접 나가 각종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나라들도 다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먼저 직시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전파를 위해서다. 해외에서 만난 현지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물으면 그다지 아는 것이 없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그 정도일까’,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하겠지만 한국에 대한 인지도의 현주소는 유감스럽게도 ‘그 정도’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밖에’ 안된다. 그 정도라는 것은, ‘한국전쟁’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고, 또 ‘월드컵 개최국가’ 등이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한국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세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 적진 않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한국의 출판저작물을 미주나 유럽시장으로 진출케 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 그 현실의 벽이 높고 두터움을 더욱 실

감게 한다. 출판저작권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오래전부터 국내 저자들의 출판물을 해외(미주, 유럽) 시장에 꾸준히 소개해 오고는 있으나 현재의 결과표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저 수입중심으로 흐를 뿐이다. 그래서 국내출판저작물의 수출과 해외 출판저작물의 수입간에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 그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정서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부의 세계인이 아닌, 대다수의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를 맞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적절할까. 해답은 간단하다. 말 그대로 대다수의 대중들이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정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문화상품(매체)을 즐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체를 동원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예로, 필자는 영화와 TV 드라마, 그리고 출판매체(책)를 우선 들겠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고 손쉽게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수년전부터 아시아권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영



화와 TV 드라마, 그리고 음악 등을 통해 전달된 한국의 문화가 그들에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영화의 수출은 영상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각국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으며, 출연 배우는

높은 가치를 지닌 하나의 브랜드로서, 그 자체가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문화상품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품 효과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또 다른 가치를 지닌 상품을 창조해 낸다는 사실이다. TV 드라마와 거기에 출연한 탤런트 역시 영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럼, 이런 문화매체들이 해외에서 일궈내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은 무엇이며, 그 가치의 결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필자는 한 예로 드라마 '대장금'을 그 중심에 놓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대장금'은 우리의 다양한 문화를 해외에 알린 하나의 결정체이며, 또 다른 관련 문화상품들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교두보를 마련한 일등공신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드라마는 사극으로서, 한국의 궁중문화를 통해 우리의 전통 궁중복식(의상)과 음식문화는 물론이고 한방의학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궁중의 복식을 통해 화려하면서도 단아하고, 또 그러면서도 소박한 우리의 색(色)과, 역시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지면서도 건강



까지 고려된 우리의 음식을 알리는 데 이 드라마가 한 몫 하고 있다는 것.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로이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궁중문화와 궁중요리, 그리고 전통의상과 한방의학을 알리려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재미있는 드라마를 통해 돈 들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벌어가면서, 그것도 전시나 공연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관람객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닌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다. 그것은 해외에 한국 문화를 알린 '대장금'의 성공 요인이다. 이것을 짚으면, 앞으로 우리가 펼쳐나가야 할 방향과 전략이 나오기 때문이다.

필자는 성공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한다. 하나는 이 드라마가 대중을 끄는 흥미로운 스토리구조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작품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공 요인은 이 드라마가 한국



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담고 있으면서도 외국인 이 그것에 대한 사전 정보나 지식 없이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후자 부분은 해외로의 수출을 위해 하나의 문화상품이 지녀야 할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드라마 '대장금'이 해외에서 일궈낸 성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대장금'은 출판분야로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절대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전파력이 영화나 드라마 못지 않게 높은 것이 책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중국, 대만, 일본 등지로 소설 '대장금'과 '의녀 대장금'은 다른 책들보다 높은 인세조건으로 수출되었으며, 현지에서의 판매도 좋아 추가인세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드라



마 '대장금'에 나오는 궁중요리를 화려하게 묶은 책 역시 좋은 조건의 인세를 받고 여러 나라로 수출되었다. 이 모두가 하나의 문화상품이 일궈낸 소중한 결실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 보이지 않는 결실이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의 가치와 인지도가 격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홍콩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본어 강좌가 폐지되고 한국어 강좌가 그 시간대에 신설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결국 한국문화가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우리가 그냥 흘려서는 안 될 대목이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 일련의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그것은 '대장금'과는 또 다른, 차별화된 문화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이며, 또 하나는 우리의 것을 문화상품화 할 때 우리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며 즐길 수 있는 보편성을 띤 소재를 발굴해내야 한다는 것. 전자의 경우를 볼 때, 한 가지의 상품이 뜨면 그와 유사한 상품을 무분별하리 만큼 만들어 내놓는 현상을 때로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오히려 더욱 차별화된 개성을 지닌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문화상품이라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접하기에 보편성이 결여된 상품은 이질감을 줄 수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가 담긴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시장은 아시아가 아니라 미주와 유럽이다. 현재의 문화시장에서 우리에게는 거의 난공불락과도 같은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우리는 그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더욱 치밀한 기획과 전략을 세워 그들의 시선과 입맛을 끌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글 _ 이구용 | 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 상무이사 · 출판컬럼니스트

내가 '원조' 네가 '짜퉁' 내가 '허포', 네가 '파퉁'

축제도 브랜드 시대, 지자체 특허출원에 '사활' 건다

이젠 지방축제도 브랜드 시대를 맞고 있다. 전북 무주군의 반딧불이 축제, 강원도 동해시의 동해오징어 축제, 강원도 양양군의 양양송이 축제, 충청남도 담양군의 담양대나무 축제 등 특산품 관련 축제의 상표 출원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은 해당 지방의 전통문화와 특산물 관련 축제를 상표로 출원해 브랜드화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의 위상 강화와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지방축제의 브랜드 붐은 향토문화 정체성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원조논쟁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지자체의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 될만한 지역축제는 앞다퉁 상표 등록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진도군의 '영등축제'가 지난 96년 상표출원을 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63건의 지방축제 관

련 상표가 등록을 마쳤으며, 서산시의 '감자축제'를 비롯한 9건의 상표가 출원돼 지금까지 총 72건이 등록 또는 심사 중에 있다.

이들 축제관련 상표 등록 수를 살펴보면 전북 무주군을 선두로 강원도 동해시와 양양군이 각각 2, 3위를 달리고 있다. 무주군은 반딧불이 축제 등 모두 9건을, 동해시는 특산물인 오징어를 내세운 동해오징어 축제와 동해무릉제, 건강문화체험 엑스포 등 6건을, 양양군은 양양송이 축제 등 5건의 상표를 출원해 각각 마늘, 인삼, 사과, 호두, 버섯 등 해당 지역의 각종 특산품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지역축제 브랜드화와 관련해 특이할 만한 점은 97년 '반딧불이 축제'와 98년 '강화고인돌 축제' 등 전통문화 위주에서 2000년 이후에는 '동해오징어 축제' '고추문화 축제' '담양대나무 축제' 등 특산품과 관련한 축제의 상표 출원이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지역축제 관련 특히 봄의 직접적인 계기는 정부가 95년에 도입한 문화관광축제 지원육성시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이 시책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관광 축제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이다. 지역축제 봄의 또 다른 계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각 자치단체도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그것의 일환으로 재정의 자립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의 판매고를 높이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 행사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상표의 권리 확보에 적극적인 수밖에 없다.

한 치 양보 없는 지자체간 '원조 논쟁'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별 축제 수는 1000여 개에 이르고 또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적인 행사나 소규모 관광축제, 예술제를 합치면 전국에서 열리는 행사는 1200여 개를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축제기간이 평균 5.2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하루 평균 전국에서 17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축제가 많다보니 테마가 겹치는 사례도 허다하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앞세운 지방 축제만 해도 경남 통영 한산대첩축제와 고성 당항포대첩축제, 거제 옥포대첩 기념대전, 남해 노량해전 승첩제, 전남 여수 거북선축제, 충남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등 알려진 것만 6개에 이른다. 여기에 서울

중구에서는 을지로 명보극장터가 충무공의 출생지임을 내세워 중구 충무공 축제를 열고 있으므로, 이순신 장군 관련 공식 축제는 전국을 통틀어 평균 한 달 보름에 한번 꼴로 열리고 있는 셈이다

또 '전어축제'의 경우 전남 광양시와 보성군, 부산, 경남 하동, 경남 삼천포, 충남 서천 등 6개 지자체가 개최하고 있고, '대게축제'는 경북 영덕과 울진 2곳에서, '송이축제'도 경북 봉화와 울진이 각각 같은 시기에 개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같은 주제를 놓고 지자체간 원조싸움도 치열하다.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은 동해안 명물인 대게를 놓고 10여 년째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98년 영덕군이 대게축제를 열자 울진군도 대게축제를 마련했고 최근에는 곳곳에 대게 조형물을 세워 '영덕대게', '울진대게' 홍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밖에도 충남 연기군과 충북 청원군은 세종대왕의 안질을 치료했다는 초정약수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북 무주군과 경기 성남시, 양평군의 반딧불이 논쟁, 대구 동구청과 경산시의 갯바위 관할권 논쟁, 해남군과 완도군의 땅끝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 명물에 대한 논쟁 못지않게 역사인물을 둘러싼 지자체간 권리주장도 치열하다.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는 청마 유치환의 출생지 논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통영시는 지난 2000년 12억원을 들여 청마문학관을 세웠고, 거



제시는 1억원을 들여 청마생가를 복원한 뒤 올해 안에 26억원을 들여 청마기념관을 지을 예정이다.

또 전북 익산시와 인접한 충남 부여군은 서동(백제무왕)을 사이에 두고 각각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익산시는 1969년부터 실시해 온 마한민속예술제의 명칭을 작년부터 ‘서동축제’로 명칭을 바꾸고 5억여 원을 들여 대대적인 행사를 치른 바 있다. 이에 부여군도 서동을 주제로 한 서동과 선화공주의 만남 재현, 서동연극초청공연 등의 행사와 함께 서동요의 상징물 설치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홍길동 축제와 관련해 전남 장성군과 강원 강릉시는 홍길동 캐릭터를 놓고 재판까지 벌이기도 했으며, 심청과 관련해서는 전남 곡성군과 충남 예산군, 인천 옹진군이 연고권을 주장하며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북 장수군과 경남 진주시는 ‘논개’의 본고장임을 서로가 자처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명물과 역사인물 원조

논쟁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역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자 축제와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면 관광객 유치 등으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주 논개제’를 열고 있는 경남 진주시는 작년 축제에서만 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홍길동 원조를 주장하는 전남 장성군은 지난해 축제 기간동안 35만 명의 관광객이 장성을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활발하게 벌어지는 지역축제는 많은 불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다. 지역색이나 차별성 없이 획일화된 채 열리고 있거나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한 채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등의 비난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부는 “지역별 문화관광축제 선정에서 지자체별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난립 양상을 보이는 지역축제에 대해 원칙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축제나



역사인물 논쟁은 각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고 정부의 지원금 혜택은 원조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이 같은 원칙 때문인지 몰라도 일부 지자체는 원조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올바른 축제’는 없는가?

지자체간 전통문화와 특산물관련 축제의 상표 출원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결국 원조임을 공증받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셈이고, 누가 먼저 특허출원했느냐에 따라 지역의 위상과 경제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축제 상표 출원 붐은 어쩌면 술한 원조싸움의 제2탄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징조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란 일정범위의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 특산품의 상표 명칭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시행

으로 전통문화나 지역특산물 등과 관련된 ‘순창고추장축제’ ‘양양송이축제’ ‘풍기인삼대축제’ ‘동해오징어 축제’ 등과 같은 지역축제행사의 상표출원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축제 붐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바른 향토사연구와 지자체간 통합의 노력을 통해 축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상생을 통한 지역 정체성 찾기와 향토 문화 바로세우기, 또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자체들이 앞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풀어나갈지는 두고 볼일이다.

<자료출처>

특허청 <http://www.kipo.go.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글 _ 박계현 기자





▼ 어름산이 서주향 (중1)



“남사당 바우덕이 이제는 프랑스에서도 줄 탑니다”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이끌고 프랑스 다녀온 이동희 안성시장

경기도 31개 시군 중의 하나인 안성시가 남사당 바우덕이라는 문화상품을 키워내 세계인으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고 있다.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을 이끌고 프랑스를 다녀온 이동희 시장을 만나봤다. 이 시장은 세계문화상품으로서의 남사당 바우덕이에 대한 자신감과 가능성을 피력했다. (편집자주)

》》 콩폴랑 축제에 다녀온 소감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이 이제 비로소 한국의 대표 문화상품으로서 세계적인 문화상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인구 15만명의 고장 안성시가 바우덕이 남사당 풍물단을 잘 키워냄으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유럽,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한류의 발신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기에 충분했다.

》》 콩폴랑 축제는 어떤 축제인가?

프랑스 중서부에 위치한 콩폴랑은 인구 3000명의 작

은 소도시다. 이곳에서는 매년 여러 대륙으로부터 20여개의 공연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민속축제가 열리는 데 이 지방 이름을 따 콩폴랑 축제라고 한다. 축제는 올해로 48회째를 맞았다.

》》 콩폴랑 축제에서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은 어떤 공연을 벌였는가?

지난달 18일부터 프랑스 중서부 지방에서 1개월 일정으로 순회 공연을 펼쳤다. 바우덕이 풍물단은 보르도, 푸아티에, 클레르몽 페랑 사이의 소도시들을 돌며 줄타기등 50여회의 크고 작은 공연을 펼쳤다. 그리고 10

일부러는 유명 민속축제인 콩폴랑 축제 48회 행사에도 참여했다. 콩폴랑 축제에서는 우리 안성 남사당이 주빈국으로 초대돼 가장 먼저 첫공연을 하였다. 여자 사회자가 나와서 안성 남사당을 소개하자 천둥소리, 북소리가 울리면서 상모놀이, 무동놀이, 12발 상모놀이를 벌여 관람석으로 부터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 남사당 공연을 접하는 외국인의 반응은?

신명의 풍물굿판에 대해 '원더풀'이란 함성과 함께 플래쉬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새삼스럽게 우리의 풍물이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특히, 현지인들은 새미(춤추는 아이)에 대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중학교 1학년생인 서주향 양의 줄타기도 가는 곳 마다 인기몰이를 했다. 콩폴랑 축제 참가 첫날 부터 현지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발디딜 틈 없이 통로를 메운 관객들이 붙드는 바람에 기념사진 촬영시간이 계속되었다.

》》 남사당 바우덕이 공연단의 해외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어느 정도 해외공연 했는가?

2002년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이 새롭게 시립으로 창단되고 토요일상설공연을 선보이면서 3~4년 사이에 국내외로 부터 공연 요청 제의를 많이 받았다. 2004년 올림픽 문화사절단으로 아테네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해외공연은 독일 미주 일본 등 수십회에 이른다.

》》 외국인들은 남사당 공연의 어떤 점을 좋아한다고 보는가?

동양적인 색채인 오방색과 흥겨운 장단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기예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남녀노소 한데 어울려 풍악을 울리고 칠무동(7명으로 이루어진 사람탑)을 쌓는 화합의 묘미와 외출 위를 아슬아슬 걸으며 재담을 나누는 엔터테인먼트적인 미학이 아닐까 싶다.

가족 접시를 돌리는 버나놀이도 우리나라, 프랑스를 막론하고 전통 문화 체험으로 좋은 거리가 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 콩폴랑 축제에서 버나를 돌리고 있는 외국인

》》 2005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10월 5일부터 열린다고 들었는데 지난해와 차별화한 점이 있다면?

올해 축제의 캐치프레이즈는 '접시를 깨뜨린 버나잡이'다. 실제로 축제장을 방문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버나접시를 돌리고 던지고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가족 체험형 축제로 구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사당 놀이의 백미인 줄타기를 해볼 수 있는 50cm 높이의 줄타기 체험과, 종이탈에 한지를 붙이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종이탈을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늘렸다.

》》 남사당 바우덕이를 문화상품화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리고 향후 남사당 바우덕이 공연단의 중·장기적 계획은?

하나의 전통문화상품은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육성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우리 안성시는 경기도와 함께 2007년말까지 80억원을 들여 안성시 보개면 북평리 일대 1500평 부지에 1500석 규모의 '안성 남사당 놀이 상설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 공연장 내부에 빔프로젝터를 활용, 공연실황과 출연진의 대사를 외국어 자막처리하는 최첨단 영상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이다. 앞으로 남사당 바우덕이 공연을 일요일에도 상설화할 계획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추진위도 머잖아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생각이다.

19세기 바우덕이의 부활

여고 2년생 으뜸산이 박지나양 안성 남사당에서 외줄 타

1848년 안성에 태어나 여자 꼭두쇠로 남자 사당패를 이끌었던 바우덕이가 부활해 매주 토요일 안성 남사당 공연장에서 외줄을 탄다고 하면 믿겠는가?

실제로 안성 남사당 토요일공연장에는 여고 2년생 박지나양(18세)이 외줄을 타고 있다.



뼈어난 미모와 기예로 조선후기 불꽃처럼 살다 바람처럼 사라진 남사당의 여자 꼭두쇠 바우덕이가 130여년만에 다시 부활해 그의 고향 안성에서 외줄을 타고 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34번지 남사당 전수관. 지난 4월 2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총 30회) 6시 30분부터 팽과리 소리를 시작으로 2시간 30분 동안 설장구 합주, 살판(땅재주놀이), 덧뵈기(탈놀이), 버나놀이(가족접시돌리기), 덜미(인형극), 으뜸(줄타기) 등 6마당이 숨가쁘게 펼쳐져 주말 여행객의 명소가 되고 있다.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다.”

살판이 벌어져 어릿광대와 재주꾼이 묘기를 부리며 쏟아내는 재담에 마당을 둘러싼 5백여명의 관객 사이에서는 한바탕 폭소가 터진다. 이어 인형의 목덜미를 쥐고 있다는 말에서 유래된 인형극 ‘덜미’가 막이 올라 인형 연출자 ‘대잡이’와 대화자 ‘산발이’가 나무와 천으로 만든 인형을 움직이며 재담과 노래를 펼쳐자 아이들의 눈망울이 밤벌처럼 초

롱초롱해진다. 빙글빙글 접시를 돌리는 버나놀이 역시 부모의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은 어린 자녀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족으로 둥글고 넓적하게 만든 접시를 버나라고 하는데 땀뻘대나 기다란 나무로 버나를 돌리면서 하늘 높이 던지고 받기를 번갈아 한다.

어린이를 어깨위에 태우며 노는 무동놀이는 7명이 탑을 쌓는 칠무동까지 선보인다. 아이를 많이 낳기를 기원하고 신동을 받든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드디어 남사당놀이의 압권인 외줄타기 공연이 시작되자 이내 장내가 숨을 죽이듯 조용해졌다. 외줄타기는 ‘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스럽다’는 뜻에서 으뜸이라고 불린다. 마당 한켠에 앉은 악사들의 반주를 신호로 으뜸산이(줄광대)가 부채 하나 달랑 들고 마당으로 나온다. 그런데 3미터 외줄 위로 올라선 으뜸산이는 다름 아닌 아직 소녀티가 가시지 않는 여고 2년생 박지나양(18세).

남사당의 으뜸산이 3명 중 차기 유망주다. 이 셋은 권원태 씨(38), 서주향 양(중1), 그리고 박지나 양. 해외공연이 있을 때면 이들 세 사람이 번갈아 나가는데 권원태 씨와 서주향

양이 프랑스 콩플랑 축제에 한달간 출연하고 있어 그 동안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안성 남사당바우덕이 상설공연은 박지나 양의 몫이다.

“뭘 볼 것도 없는 공연 보러 먼 길들 오셨네.”라며 익살어린 인사를 건네자 관중들은 이내 폭소가 터진다. 그 순간 가냘픈 어름산이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 분명 18세 여고생 어름산이가 발장난 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고개 올려 보는 아저씨들의 마음이 콩당콩당 뛰고 관중들은 손에 땀을 질 수 밖에 없다.

이팔청춘 어름산이는 더욱 흥이 났는지 외줄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고난도의 곡예를 보여준다. 20여분간에 걸쳐 재미 만점, 스릴 만점의 기예를 선보인 공연은 어름산이가 줄 반동을 이용해 하늘로 수차례 1~2m 가량 경중 경중 솟구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응석이나 부릴 나이인 초등학교 시절 우연히 남사당 공연을 한번 본 뒤로 이에 폭 빠져 패를 쫓아다니다가 남사당 패의 눈에 띄어 ‘어린이 단원’으로 가입하게 됐다.

안성 남사당에는 처음 입문한 아이들을 ‘삐리(초자)’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악기를 다루는 법이나 풍물을 노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저 이것저것 심부름이나 하며 풍물가락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일이 전부다. 이들을 새미라 한다. 새미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박지나 양은 눈매시가 빨랐다. 풍물 놀이도 금방 손과 발로 익혀버렸다. 이를 보고 당시 상쇠이자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 김기복 선생은 박지나 양의 재주를 알아보고 장구를 배우게 했다. 이후 남사당풍물놀이 공연에 함께 다니며 새미로 출연하거나 무동놀이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2001년도 제1회 안성남사당축제를 개최하는 해에 박지나와 서주향에게는 연마하겠냐는 제안이 들어왔고 지나와 주향은 사탕을 받듯 제안을 덩석 받아들이고 만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줄타기였기에 매우 고난도의 수련 과정이 주어졌으나 박지나 양과 서주향은 힘든 수련과정을 끝까지 잘 견뎠다.

2002년 5월 남사당놀이 전문 기능단체이자 프로집단인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이 창단되자 이 두 여학생은 ‘학생단원’으로 기능전승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여 나가게 된다. 이어 2003년 4월부터는 수많은 관중 앞에서 본격적으로 줄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도 바우덕이 축제 기간중에는 가장 교육적이며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9시 무렵 공연을 지켜보던 관중들과 공연단이 손을 맞잡고 풍물에 맞춰 덩실 춤을 추는 것으로 뒷풀이를 한다. 지나도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땅위를 경충경충 뚫다. 등줄기에 땀이 흠뻑 배었지만 지나의 발놀림은 한동안 설 수 없다.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테네올림픽 거리공연에도 참가하고 경기 방문의 해 홍보차 미주 공연도 다녀왔지만 지나는 뭐니뭐니해도 바우덕이의 고향 안성에서 줄을 탈 때가 가장 떨리고 짜릿하다.

글 _ 김보라 기자

안성 청룡 바우덕이
소고만 들어도 돈 나온다
안성 청룡 바우덕이
치마만 들어도 돈 나온다
안성 청룡 바우덕이
줄 위에 오르니 돈 쏟아진다
안성 청룡 바우덕이
바람결에 잘도 떠나간다

▼아이들이 어름산이에게 돈을 건네주고 있다.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토요일상설공연장 찾아가는 길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34번지
(안성 시청앞 로터리에서 죽산·일죽 방면 도로로 가다가 티널을 지나자 마자 우회전하여 직진. 자동차로 시내에서 5분 거리)



외국인에게 선물하기에 '안성맞춤'

안성유기

한가위가 가까워지고 있다. 명절에는 제사 음식 못지 않게 제기(祭器)가 중요하다.
현대들어 '웰빙 그릇'으로 각광받는 놋그릇을 취재해 봤다. (편집자주)

큰 명절을 앞두고 마당에 둘러앉아 깨진 기왓장 가루를 묻혀 지푸라기로 낫그릇을 꺼내 닦던 기억은 젊은 세대가 아닌 이상 하나씩은 갖고 있을 것이다.

빙 둘러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꽃을 피울 무렵이면 어느새 낫그릇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윤이 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하늘 높이 들어 얼굴을 요리조리 그릇에 비춰보곤 했던 기억은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돼버렸다.

낫쇠는 이만큼 예전부터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갖가지 생필품으로 만들어진 친근한 것이었다.

낫그릇의 원료인 낫쇠는 구리에다 주석이나 아연·니켈을 섞은 합금으로 청동기시대의 청동도 낫쇠의 일종이라고 한다. 이 유기제작기술은 당나라에서 처음 유입되었으며, 그 영향을 받은 신라에서는 8세기경에 철유전이라는 상설기구까지 설치할 만큼 활성화 됐다. 고려시대에는 낫



쇠를 만드는 우리의 제작 솜씨와 합금기술이 절정에 이르러 중국과의 교역품 중 제일

가는 것이 되었고, 외국사신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품으로 낫쇠로 만든 제품을 가져가게 되었다. 고려시대 낫쇠는 평민층까지 확산되어 각종 생활용기 및 농악기 등이 낫쇠로 제작되었고 금속공예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 조선시대에 실학자 유득공은 『경도잡기』라는 그의 책에서 “세속이 낫그릇을 중요시하여 사람들은 일체의 그릇을 낫쇠로 사용한다. 심지어 대야와 요강까지 낫쇠로 만든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찍부터 수공업이 발달한 안성은 조선시대 경제통로의 요충지로서 영남과 호남의 문물이 모여드는 조선 3대 시장의 하나였다.

안성공장에 엮인 2만 냥을 급전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 정조15년(1791)의 『일성록』이나 순조 3년(1803) 발간된 『임원십육지』에서 안성에서 유기가 난다는 내용 등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다른 지방에 비해 안성의 유기가 더욱 유명한 것은 서울 상가의 그릇을 주문받





개나 되던 공방이 안성에 있었고 서울의 사대부들이나 지방의 부호들은 모두 안성유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다. 그러나 한동안 잘 유지되어 오던 안성유기도 일제의 침략으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전국에 있는 유기를 거두어 들임으로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일시에 안성유기가 없어지는 큰 수난을 겪기도 했다.

아 제작했기 때문이다. 이북 산간지대나 경상도, 전라도는 주로 보리밥과 잡곡을 먹었기 때문에 그릇이 투박했다. 반면, 안성에서 주문해 사용하던 서울의 반상가에서는 쌀밥을 해먹었기 때문에 그릇이 아담하였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보통 그릇으로 장에 내다 팔던 '장내기'와 명문사대부 집안에서 맞춤으로 주문하여 제작한 '모춤(마춤)' 두 종류가 있던 안성유기는 바로 이 모춤 때문에 유명한 것이었다. 주문한 유기가 품질과 모양 및 디자인 모두가 좋게 제작되어 안성맞춤이라는 말 또한 생겨난 것이다. 안성유기는 처음엔 식기류, 불기(佛器)류였다가 조선시대 들어서 다양화됐다. 조선시대 말까지만 하여도 십 여

집집마다 그릇, 대야, 제기(祭器) 등으로 널리 쓰이던 것이 일제 말기 포탄으로 쏘다 고 하여 공출된 후 거의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일제 시대에는 놋그릇의 원료를 군수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예 놋그릇의 제작을 금지시켰으며, 나중에는 일반 가정에도 있는 놋그릇까지도 모두 회수해 갔다. 그때 우리 조상의 예술성 높은 놋제품이 거의 모두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뜻있는 유기공들이 산으로 숨어들어 계속 유기를 만들었고, 해방과 함께 다시금 성행하여 안성 시내 곳곳에는 유기공장이 20군데나 생겨났다. 식기류인 반상기를 중심으로 수저, 젓가락, 담뱃대 등

을 비롯 안성유기의 특징인 주물 제작법과 함께 방자 제작법도 성행하여 전성기를 이루었다.

하지만 6.25 이후 가난한 시대에 먹고사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사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무겁고 번거로운 놋그릇의 품격을 지니며 사는 것보다는 가볍고 편리한 양은그릇을 많이 사용하게 됐다. 더군다나 재래식 아궁이가 연탄으로 바뀌면서 연탄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가 놋그릇을 산화시켜 변색이 되는 바람에 놋그릇은 차츰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때맞추어 등장한 값싼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식기에 이제 놋그릇은 겨우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대도시의 연료가 연탄으로 바뀌자 쉽게 부식되어 버려 차츰 유기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현재는 오직 '안성맛춤'이란 말만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 있으며 안성의 김근수(金根洙)옹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 요즘 뜨고있는 웰빙열풍에 놋그릇(유기) 만큼 어울리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듯 하다.

냄새와 독성이 없는 놋그릇은 그야말로 무공해 식기다. 농약을 많이 친 음식을 유기에 담으면 그릇 색이 변하기 때문에 음식의 유해 여부

를 알 수 있다. 음식 재료를 끓이거나 삶을 때는 주로 유기제품을 사용하여 알아 보았으며 여건이 충분치 못할시에는 놋숟가락이나 놋젓가락이라도 넣어 끓이고 삶기도 하였다.

또한 살균 작용이 뛰어나 그 안에 미나리를 담아두면 거머리가 떨어져 힘을 못 쓴다. 옛 사람들은 집 안에 유기로 만든 요강을 두고 써서 소변의 나쁜 병균이 퍼지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요근래 나온 자료에 의하면 유기에 음식을 담으면 0-157 식중독균이 없어진다고도 한다. 자연친화적인데다, 건강을 위해 이만한 것도 없겠다 싶다.

이 휘황찬란한 황금빛을 발하는 유기는 그 빛이 은은하고 닦으면 닦을수록 광택이 나는 신비로움에 쉽게 눈을 떼기 힘들다.

안성 유기 공방(안성맛춤유기장)을 찾는



▲ 안성 유기 공방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김근수 옹



외국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러리라. 유기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는 전시장에는 그릇, 찻대 등 생활 유기는 물론 각종 장식품, 제기, 불구 등 눈부실 정도로 광택이 뛰어난 수백 여 종의 다양한 유기들이 이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뛰어난 합금 기술과 견고함, 우수한 광채는 동양의 신비로 비춰져 젓가락부터 여의주를 문 용 장식품, 팽가리에 이르기까지 공방을 나가는 이들 손 한가득 선물꾸러미를 들고 가게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유기들이 외국인들에 의해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재질과 기능, 아름다운 조형미를 과시하며 발전해 왔던

우리 유기.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장인들의 제작은 유기 속에 그들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담아주었다. 이 같은 정성과 염원을 담아 만들었기에 유기는 한국인의 심성을 가장 잘 담은 공예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겁고 닦기 힘들다 하여 어느샌가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대체되어 이제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유기 of 우수성을 인식하여 다시금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보통 설거지 하듯 가볍게 씻어 말려 쓰면 6개월 정도는 색이 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사용중 장기간 보관이 불가피 할 때는 깨끗이 닦아 물기를 제거한 다음 식기 포장지나 종이로 싸 후 비닐 등으로 밀폐시켜 보관한 다면 변색이 되질 않아 재사용시 닦을 필요가 없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놋그릇 유기. 조금만 신경 쓴다면 전혀 번거로울 일 없는 전통유기들은 그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실용성은 물론이요, 파란눈의 이방인들에게는 신비로운 황금빛을 발산하며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빛을 다시금 살려내는 작업이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하겠다.

글 · 사진 _ 서희정 프리랜서 기자

오래될수록 은은한 색을 뿜어내는 유기

알고 사용하니 더욱 찬란하네~

유기사용방법



보통 유기그릇을 처음 구입하면 광이 죽거나 굵힐까 하는 염려에 스폰지 수세미 등으로 살살 문질러 닦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유기는 일반 그릇처럼 설거지 하면 된다. 모든 금속은 가만히 두면 산화막이 생기는데 이 산화막이 쌓이면서 그릇이 변하게 된다.

때문에 평소에는 약간 거친 수세미로 일반 그릇처럼 설거지만 잘해주고 색이 많이 변

했다고 느껴질 때 마른 수세미로 닦아주면 된다. 반짝거리는 광은 인위적인 것으로 원래 본 색깔은 은은한 금빛이다.

그래서 쓰면 쓸수록 광이 죽으며 유기 본색인 은은한 금빛을 띄어 오히려 유광보다 고급스럽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준다.

유기(제기)의 보관법

자주 안쓰거나 제기처럼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일단 깨끗히 씻어주고 물기와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준다. 그리고 신문등에 싸고 2차적으로 비닐봉투에 싸서 보관하면 된다. 혹은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밀폐하여 보관하면 색이 더 많이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 너무 강한 수세미(철수세미)는 그릇의 표면을 상하게 만든다.
- 강한 음식(초장, 간장, 식초 등)을 장기간 두면 색이 변질되니 유의한다.
- 일부 제품(전골냄비, 솥 등)을 제외하곤 불에 직접사용을 하면 안된다.
- 전자렌지 사용이 가능하나 꺼낼 때 그릇이 뜨거우니 조심한다.



독특한 우리문화 '촌수'

친족(親族)이란 혈연과 인척을 합친 개념이다. 혈족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집단(양자 포함)이며, 인척은 혼인에 의해 생긴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숫자 체계가 바로 촌수(寸數)이다.

우리의 촌수는 어느 친척이 나와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는 우리 고유의 제도이다.

촌수를 계산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 마디(1촌)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즉, 나와 부모 사이는 1촌 관계에 있다. 형제자매와 나의 촌수는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부모간의 1촌과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형제들은 나와 아버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 1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 1촌을 더하여 3촌 관계에 있는 셈이다. 3

촌의 자녀들은 나의 4촌이며, 그들의 자녀들은 나의 5촌 조카들(당질)이다.

친족의 호칭과 촌수를 말할 때 가깝고 먼 정도를 나타내는 촌수의 친족 호칭으로 사용하는 범위는 3~8촌이다. 친족의 촌수 중 가장 먼 거리가 8촌인 이유는 조상의 제사를 고조(高祖)까지 '4대 봉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이렇다 보니 8촌까지의 친족 원들은 빈번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촌수 가운데 짝수는 나랑 같은 항렬, 홀수는 나의 윗 항렬(아저씨) 아니면 아래 항렬(조카)이다.

촌수를 따지는 방법에는 크게 남자, 여자(고모계), 외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백·숙부 및 종형제와 조차, 고모와 내종형제, 처족, 사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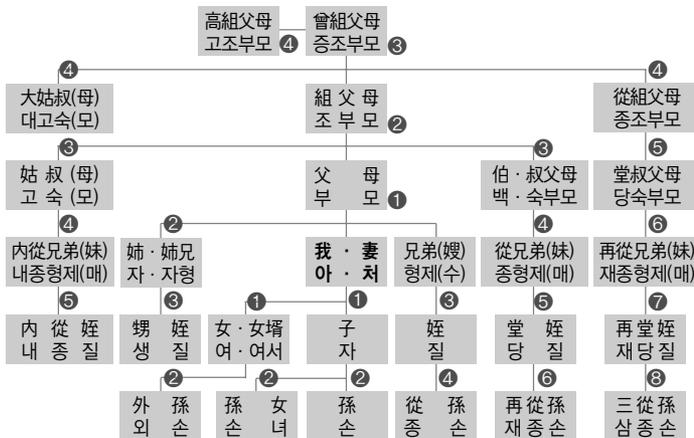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 쪽의 서열에 따라 남편 동기의 배우자 등에 대한 호칭과 경어 사용이 정해지는데, 아내의 동기들에게는 여자의 서열에 관계없이 '사회의 사귀 관계'라 하여 서열을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남자들의 나이에 따른다는 것이 지나친 남성 위주의 사고라는 지적도 있다.

글 _ 김보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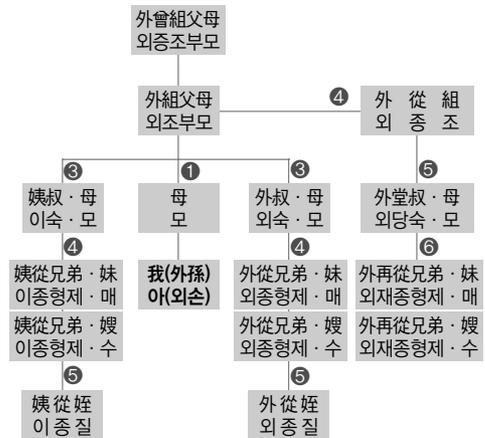
촌수 관계에 자주 쓰이는 관계·용어

- 1) 백부(伯父), 숙부(叔父), 고모(姑母)
아버지의 윗형제를 백부(큰아버지), 아랫형제를 숙부(작은아버지), 그리고 여형제를 고모라 하며 그 배우자를 각각 백모(큰어머니), 숙모(작은어머니), 고숙, 고모부라 한다.
- 2) 종조부(從祖父), 대고모(大姑母)
할아버지의 형제를 종조부(큰, 작은 할아버지), 여형제를 대고모라 하며, 그 배우자를 또한 종조모, 대고숙, 대고모부라 한다.
- 3) 당숙부모(堂叔父母)
종조부모의 아들 부부이다.
- 4) 형수(兄嫂), 자형(姉兄)
각각 형제와 여형제의 배우자이다.
- 5) 종형제(從兄弟), 종매(從妹)
백·숙부모의 아들과 딸로, 나와 친사촌간이다.
- 6) 내종형제(內從兄弟), 내종매(內從妹)
고모의 아들, 딸로 흔히 고종 사촌이라고 한다.
- 7) 재종형제(再從兄弟), 재종매(再從妹)
육촌 형제, 자매 사이이다.
- 8) 질(姪), 생질(甥姪), 당질(堂姪), 재당질(再堂姪)
각각 형제, 누이, 내종형제·매, 재종형제·매의 자식이다.
- 9) 손(孫), 외손(外孫), 종손(從孫), 재종손(再從孫), 삼종손(三從孫)
아들, 딸, 조카, 당질, 재당질의 자식이다.

친족



외족



장터에서

하찮은 나날 싸 짊어지고
허리가 휘어지게
다리 폼 팔아 부려놓은 등짐장수

삶의 무게를 떠놓은 낡은 보자기
머리카락 서캐에
손톱
발톱까지
모아들인 부스리기들이
난전을 본다.

주고 싶어 떠놓고
갖고 싶어 담아 놓은
일상의 살림살이 나부랭이
팔기도
사기도 하며
아쉬움을 채워지는 웃음들

새 옷을 입거나
허름한 입성을 걸치거나
살만 감추고 허대는 돌뱅이

일복차림으로 목로주점에 마주하여
인정으로 넘쳐 나는 막걸리 잔
권커니 마시거나
사람 내 취기에 빠져든다.



고두영 | 장수문화원장 · 시인
장수문인협회장. 시집 「하얀 바람의 숨결」 외 5권, 문집 「주논개」 외 4권





어촌풍경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오징어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Turkey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빛나는 거대한 시간창고

시간과 공간 넘나드는 타임머신 여행

동서문명의 교차로 터키를 다녀왔다.

6년여동안 적을 두어 온 충북대학교 박물관대학의 2005고대문명답사단 그 팀의 일원이었다.

금년은 내게 역마살이 낀 해 같다. 중국운남성 세계자연유산기행과 만주 고구려유적 답사 그리고 다시 러시아문화탐방 등 세차례의 해외나들이 끝에 이어진 13일간의 벽찬 터키여행. 처음엔 망설였으나 어쩐지 꼭 가 봐야만 할 것같은 의무감이 느껴져 뒤늦게 합류를 했다.

6월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박차고 이륙한 터키항공 짐보기는 땅거미가 질 무렵 우리 일행 33명을 이스탄불 공항에 내려놓았다. 손목시계의 바늘을 여섯시간이나 뒤로 물리고 내려선 신화의 땅엔 지중해 거센 바닷바람이 마중나와 있었다. 불과 수세기 전 만해도 실크로드를 따라 파미르고원을 넘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는 그 먼 아시아의 동쪽끝에서 서쪽 끝까지를 11시간만에 다다른 것이다.

거대한 시간창고 터키는 30만년 전 선사유적에서 1만여전 신석기 유적, 3천여년 전 도시국가 유적들이 현대문명과 어우러져 다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루의 답사여정에도 수천년간의 역사가 뒤엉켜, 마치 퍼즐게임 속에서 아라비안 나이트를 꿈꾸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우리는 한반도의 4배나 된다는 광활한 아나톨리아반도를 북쪽의 흑해 연안과 동쪽의 이라크 접경지대를 제외하고 시계방향으로 한바퀴 돌았다. 하루 10시간 이상의 버스투어를 하는 강행군이었으나 피곤하지가 않았다. 문명의 유해(遺骸)들이 경이롭기도 했고, 단맛이 듬북 든 온갖 과일들이 피로를 말끔이 씻어 주는 특효약이 되었다.

케말은 세종대왕+이순신 같은 인물(?)

이스탄불의 첫 방문지는 오스만제국의 두 번째 왕궁이던 돌마바흐체궁전이었다. 프랑스 베르사이유를 모방했다는 보스포러스해변의 이 호화로운 궁전은 10여일 전 다녀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미술관을 연상케 했다.

오스만제국의 철용성이 사치의 극을 달리다가 무스타파케말에 의한 터키공화국 탄생과 함께 종언을 고하며 박물관이 된 것처럼,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러시아제국이 멸망하면서, 왕궁이 미술관으로 개조된 것이다. 터키엔 무스타파 케말이, 러시아엔 레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수도가 앙카라와 모스크바로 옮겨졌다는 점도 유사했다.

이 돌마바흐체궁전에서부터 한국인 현지 가이드의 입에서 말끝마다 튀어나오는 이름이 바로 터키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초대대통령 케말이었다. 가이드는 그를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합친 인물이라고까지 소개할 정도였다.

케말은 그리스와의 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터키공화국을 세우면서 터키문자 창제와 민주국가로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영웅적 인물로, 전국 어디를 가나 그의 사진이 걸리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였다.

또 하나 부럽게 느껴진 것은 터키인들의 국기사랑이었다. 공공기관은 물론 시골구석의 구멍가게 앞에도 붉은색 대형 국기가 펄럭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과 터키간 3, 4위전때 무려 4톤이 넘는다는 대형 터키기가 응원석을 뒤덮는 장관을 TV로 목격한 터키인들의 감동은 가히 광적이었다고 한다. 물론 게임도 이겼지만 한국민의 따뜻한 응원이 전날까지 2%에 머물던 현대차 판매고를 하룻밤사이 8%로 꺾충 뛰어 오르게 했다는 것.

우리는 돌마바흐채궁전에 이어 성소피아박물관과 술탄마호메드사원 지하저수지등을 보고 항공편으로 수도 앙카라로 향했다.

점토판에 되살아난 히타이트문명

앙카라의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은 거대한 역사공간이었다. 터키 전역에서 발굴된 대표적 유물들이 시대별로 전시되고 있는 박물관에 들어서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촘촘히 진열된 구석기·신석기시대 유물들, 고고학에 문외한인 내 눈에도 값진 보석처럼 보였다.

우리가 답사할 카라얀 동굴 유적 출토물, 차탈회육 신석기유적, 히타이트 청동유적들이 거기 다 있었다. 우리는 이 문명사박물관에서 답사할 곳들에 대한 예습을 먼저



한 셈이 됐다. 오랜 지기(知己)인 한국 고고학계의 권위 이용조박사(충북대 박물관장)가 옆에 있어 든든했다. 그는 이번 답사단의 인솔자였다.

내가 한마디 던졌다.
“이 유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면 국보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것만 국보가 될 수 있으니까.”

우문현답(愚問賢答) 같았지만 대단한 유물들을 보는 그의 얼굴에도 부러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런데 터키는 자력으로 유적발굴을 하지 못하고 외국인 교수들의 힘을 벌리고 있었다.

잠시 후 이교수가 나의 손을 끌었다. 박물관장과의 면담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흰칠한 키의 테니스리 관장은 내가 내민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니 선물한 점을 주었다. 히타이트 유적 모조품, 내 이름을 넣고 사인까지 해 주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었다. 앙카라 문명박물관을 뒤로 하고 우리는 보아즈칼레로 이동, 점토판으로 하여 묻혀있던 3천여년 찬연했던 문화가 햇볕을 보게된 그 불가사의한 히타이트제국의 수도 하투사유적을 살폈다. 세계문화유적중의 하나였다.

대신전, 바위성소, 알라자회육(히타이트시대 주거지), 사자문, 왕의문 등을 돌아보면서 나는 문득 만주 고구려유적을 떠올렸다. 고구려의 첫 수도인 오녀산성을 올랐을 때 그 천혜의 요새와 비슷한 점이 있었다. 왕의 화장실과 수영장이라 일컫는 유적을 보면서 고고학자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괴뢰메 암굴교회와 지하도시

고대문명의 아름다운 발자취로 가득한 카파도기아는 지도상엔 네브쉐히르이다. 독특한 지질이 빚어 낸 신비스런 자연경관과 각 시대의 유적은 너무도 매력적이었다. 나는 버섯바위 그늘에 털석 주저앉아 조물주가 빚어낸 오묘한 장관에 넋을 잃고 말았다. 그 옛날 종족간에 벌어진 전쟁에서 패해 갈 곳을 잃은 패전병들이 숨어들어 파 놓았던 암굴들이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 교인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곳이 바로 괴뢰메 암굴교회였다. 수십여개의 굴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었고 내부 벽에는 성화로 가득한데 전세계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코스가 되고 있었다.

이어 테브렌스 계곡, 파샤바계곡도 이채로웠다. 구멍이 송송 뚫린 벌집모양의 2층 굴

에 올라 아낙들과 마신 홍차 한 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하다.

카파토기아 또 하나의 명소는 단연 지하도시이다.

화산 용회암을 깎아서 지하 8~9층까지 파고 내려가 만든 이 지하도시는 기원전 5세 기경 토착민들이 아랍인들의 침략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괴뢰매암굴처럼 훗날 박해를 피하는 기독교인들의 은신처로 사용되었다.

침입자를 차단하기 위한 맷돌같은 커다란 돌, 물류운반통로와 공기 통 역할을 하던 길이 85m나 되는 우물 유적들을 보며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은 드넓은 평야 허허벌판에서 느닷없이 쳐들어와 씨를 말리고 가는 저승사자들을 피하기 위해 지하 200m까지 파 들어갔던 것이다.

17일에 찾아간 콘야의 차탈회육(회육은 유적이라는 뜻)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유적으로 현지 가이드가 길을 몰라 한참을 헤메었다.

1만여년전 신석기시대 건설된 도시에는 2천여 집터에 8천여명이 집단생활을 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을 덮은 위에 다시 집을 짓고 하여 14층을 이룬 곳도 있었다. 이 도시가 갑자기 소멸된 것은 전염병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에페소와 호머의 고향 이즈미르

1만년전 집터들을 뒤로하고 30만년전 사람이 살던 동굴유적을 찾아가는 길을 토로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다. 2천m 고지대의 돌산 줄기를 넘느라 점심을 굶었다. 오후 4시가 넘어서 휴게소에서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었다.

휴양도시 안탈랴를 가는 길목에 야스펜도스 원형극장이 있었다. 1천8백년전에 건축되었다는 반원형 극장은 건축가 제논의 작품인데 완벽한 음향효과를 창출해 낸 비밀방식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잠시 가곡 경연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튿날, 30만년전의 선사유적지 카라안동굴 답사를 위해 3백m높이의 가파른 돌산을 올라갔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보니 아직도 발굴중이었다. 내려오는 길엔 매미소리가 요란했다.

안탈랴의 고고학 박물관은 입장료가 비싼 편이었으나 보고난 감동은 미약했다. 아마도 앙카라박물관에 마음을 빼앗겼던 탓이리라.

목화의 성이라 불리는 파묵칼레에서 1박하며 온천욕으로 몸을 풀었다. 다음날 언덕 전체가 목화처럼 새하얗게 뒤덮인 석회층 계단을 내려갔다. 흐르는 물에 맨발을 담그며 세계 자연유산의 진수를 만끽한 뒤 아프로디아시스 유적지를 한바퀴 돌았다.

22일 고대도시 에페수스의 유적에서 한 나절을 머물고 오후에는 현존하는 최초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딧세이를 남긴 호메로스의 고향 이즈미르에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보기도 했다.

그 동안 호메로스를 그리스인으로 알아왔으나 이번 여행에서 그가 터키땅에서 태어났고 터키인들로부터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C 8백년경 그가 태어난 곳은 이즈미르이며, 카오스섬에서 살았고 이오스에서 사망했다고 전한다. 전설 속의 대문호가 역사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고 있는 듯했다.

이스탄블에서 머문 마지막 이틀 동안 6백년의 역사를 가진 이스탄블 대학과 토크아프 궁전과 이스탄블 고고학 박물관을 돌아보았다.

과연 가이드 말이 맞았다. 똑같은 항로를 동일기종의 비행기로 되돌아 가는데 올때는 11시간 걸리던 것이 돌아갈때는 두시간이나 단축되었다. 바람을 안고 가느냐, 등에 지고 오느냐 차이라는 것이다.

터키 답사 11일간은 길고도 짧았다.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터키인들의 몸은 유럽인들과 다를 바 없고 생활양식 또한 유럽화되어 가고 있으나 정신은 아직도 동양쪽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들은 매우 도덕적이었다.

터키인들은 영웅처럼 숭앙하는 건국의 아버지를 가졌고, 하나로 떠받드는 애국의 깃발이 높이 걸려있어 부러웠다. 양국의 문화교류와 우호친선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_ 박영수 | 청주문화원장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 연수를 다녀와서



떠남과 이별 그리고 만남

여행은 새로운 세계로의 떠남이며 이별이자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집을 나서며 들은 예보로는 오늘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먼바다로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올 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저녁을 먹고 이어진 이흥재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님의 강의가 끝나갈 무렵부터는 제법 배가 흔들려 어지럼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배에 적응이 되지 못한 축들은 아예 눈을 감고 강의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웬만한 탈 것에 멀미를 느끼지 않는 나였지만 강의가 끝나고 선실로 향

하는 계단에서의 갑작스런 휘청거림은 어쩔 수 없었다.

비가 내리는 날은 파도가 높다. 해안 초병으로 근무할 때도 늘 그랬던 것 같다. 비가 오고 파도가 치고,

배멀미로 인한 울렁증을 가라앉혀 볼 겸 갑판으로 나왔다. 후독이는 빗줄기 속에서 바다를 바라다 보니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배를 향해 달려들고 부수지는 파도의 포말만이 보인다. 울컥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바다 한 복판인 탓인지 바다는 검게만 보이고 검은 물결은 뱃머리를 향해 달려들고, '현해탄' -대한해협을 예전엔 일반적으로 현해



탄이라 불렀다. - 여기가 그 현해탄이 아닌가 싶다. 검게만 보이는 바다. 아마도 일제시대에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며 실어날랐을 그 수많은 가난과 아픔, 이별과 사랑, 조국을 잃은 한을 달래야 했던 바다이기에 그 한을 머금어 검은 빛을 띠게 된 것은 아닐까.

후독이는 빗줄기 속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가락으로 뱃전의 난간을 두들기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너의 가는 곳 그 어디야./쓸쓸한 세상 적막한 고해에/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고만

일까./행복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마지막 작품 ‘사의 찬미’로 세상 젊은이들의 가슴을 아리게 했던 윤심덕.

아직은 근대적 의미의 연예인이 생겨나기 이전 일제기의 어려움 속에서 교사로, 배우로 그리고 대중가수로 활약했던 여인.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한 사람 김우진과 영원한 사랑을 민족의 가슴에 심어 놓고 떠나간 곳이 여기 어디쯤이 아닐까.

넓은 바다로 나온 탓인지 배는 더 출렁이고 삼삼오오 짝을 이룬 전국 문화원 사무국장 동지들의 지역 문화에 대한 토론도 점점 절정을 향하고 있었다.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도다.” “칼위에 춤추는 자도다~” “칼위에 춤추는 자

도다...”

그렇다. 우리 모두는 칼 위에서 춤을 추는 자들이다. 문화원 사무국장의 일이 또한 정말 그러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일인지라 정말 칼 위에서 춤을 추듯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밤을 새는 열띤 토론 속에 날이 밝아오고 서서히 시모노세키 시가가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다. 설레임과 기대감, 그리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미묘함으로 아침을 건성으로 먹고는 입국 준비를 서둘렀다.

우리 근대사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겨준 나라, 아직도 구원(舊怨)과 독도 문제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만 가는 나라, 그러나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지만 무서운 속도로 국가를 재건하고 세계에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나라. 비무장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질서에 깊이 관여하는 나라.

그들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어찌하면 짧은 연수기간에 그들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을까?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 했던가! 복잡한 심사를 뱃속 깊이 감추고 이국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시모노세키 세관을 통과했다. 시모노세키항을 벗어나자 밖에는 우리 일행을 태우고 다닐 버스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새차가 아닌데도 깨끗한 느낌이 드는 것은 일본에 대한 선입견일까. 좁지만 깨끗하다 못해 산뜻하게 보이는 거리를 달려 벳부(別府)에 도착을 했다.

특별한 도시 벳부(別府)

과거 동경으로 가는 공물을 모아 저장했던 곳으로 그 중요성으로 벳부(別府)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한다. 벳부의 중앙공민관을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시간의 여유가 있어 공민관으로 가는 길에 해지옥(海地獄)이라 불리는 용출 온천 관광지를 잠시 들렀다. 온천수가 에메랄드빛을 띠어서 해지옥이라는 이

름이 붙여진 듯했고 용출 온천수를 이용한 삶은 달걀이 특별한 간식거리로 판매되고 있었다. 온천수로 삶은 달걀을 한 개 먹는 데 7년씩 젊어진다는 너스레와 함께 먹어보라며 가이드가 삶은 달걀을 내놓았다. 함께 있던 음성의 박국장이 한 개씩만 먹으라는 달걀을 두 개째 집어들었다. “박국장! 큰 일 날려구 두 개 씩이나 먹어? 두 개 면 14년이 젊어지는 데 너무 어렵지 않잖아!” 했더니 머리 숫이 적어 나이보다 훨씬 더 연치가 있어 보이는 박국장 하는 말이 “아이구 형님! 사실은 머리 숫이 많았던 더 어린 시절로 가려고 세 개 먹었수. 그래야 장가두 가지유” 하는 너스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파편이 될까봐 이를 양다물고 웃음을 참아야 했다.

나오는 길목에 있는 족욕탕은 여행에 피곤한 이들의 피로를 식혀주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용출되어 흐르는 온천수를 이용하여 자그마한 족욕탕을 만들어 찾은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상품화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본인들의 경제적 감각이 느껴졌다. 더구나 ‘온천수 속에서 삶은 달걀을 한 개 먹으면 7년 씩 젊어진다’는 스토리 텔링(이야기 입히기)은 고도의 전략이었다.

해지옥 관광지를 약속시간을 맞추기 위해 설렘설렘 돌아보고는 시간에 맞추어 우리 일행은 뱃부 중앙공민관으로 향했다.

자부심 넘치는 중앙공민관

중앙공민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오래되어 추레해 보이기마저 하는 낡은 건물이 우리를 맞고 있었다.

둥글둥글해서 인심 좋은 이웃 아저씨처럼 생긴 중앙공민관 관장님의 미소를 보고서야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다. 2년 전 까지 소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근무를 했었다는 그는 연수과정을 거쳐 지금은 이곳 공민관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

교원들은 퇴직을 한 후에도 10년 간 사회 교육기관에서 근무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긍지가 빛나고 있었다. 처음 건물을 보고 느꼈던 추레함은 어느새 고전적 아름다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1928년에 지어졌지만 지금껏 이용되고 있으며 1968년에 한번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지만 이때도 전체적인 모습을 간직하도록 한 채 필요한 부분만을 고쳤다고 말하며 2층 한 곳을 가리켰다.

1928년 건축 당시에 설치되어 지금껏 이용되고 있는 목재 관람석이였다. 1928년, 찌렁 찌렁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우리 일본인은 아시아의 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이 시기 일본은 아시아 대륙을 모두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 전에 이들의 수중에 떨어진 뒤였고 동남아 지역과 만주지역이 이미 이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던 시기이다. 그렇다! 바로 이들의 힘이 여기에서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의 힘과 정신력은 공민관을 통한 사회 교육에 있는 듯 싶었다. 공민관에서는 다양한 강의가 이루어진단다.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 이곳에 와서 유년·소년 시절을 보낸다. 청장년기를 거쳐 직장에서 은퇴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도 이곳에서 취미 생활을 하고 운동도 하며 황혼을 즐긴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방과후에 공민관에 와서 숙제도하고 필요한 공부도 하며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일본의 공민관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사회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발전을 논의하는 협의체이기도 하다. 여기서 일본인 특유의 질서 의식과 국가관이 형성되어 왔던 것은 아닐까.



▲ 요시노가리 유적

‘문화원과 공민관’ 같은점과 다른점

한편 부럽고 한편 부끄럽기도 했다. 우리에게도 이들 공민관과 유사한 조직이 있다. 역사와 전통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문화원’이 바로 그것이다. 전국적인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교육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하고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와 강좌를 담당하는 점도 유사하다.

아직까지도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공민관과 일찍이 민 주도로 활동해온 문화원이 다르다. 그러나 주민들의 일은 주민들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 ‘문화원’이 이미 공민관의 경직된 조직을 능가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주민 주도의 ‘자주강좌’를 만들어 주민들의 자주적 참여를 끌어들이고 있는 그들의 노력은 이미 관주도 일본도의 공민관의 운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대안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문화원’들이 그들에 비해 조금 늦어 보이지만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일찍이 문화원을 주민주도의 조직으로 만들어 왔고 주민들의 자주적 참여만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고 문화 강좌들을 이끌어 왔다. 공무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예산의 전액이 시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일본에 비해 문화원의 경우 일부의 한정된 예산과 자부담 운영으로 인해 예산부족 현상 상존으로 그 영역을 더욱 넓히고 다양화하는 일에 부족함을 느낄 뿐이다.

사회 교육 기관으로서의 문화원의 역할

벧부시 교육위원회 직원의 일본 공민관 운영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공민관 관장은 퇴임 교원들 가운데 2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그 급여는 공무원에 준한다. 그리고 그 외의 직원은 모두 시의 공무원들이라 한다.

공민관은 교육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교육위원회는 학교교육을 비롯한 사회교육과 문화 예술에 관한 것을 통제하고 운영한다. 우리의 사회교육과 학교 교육이 전혀 다른 계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는 사뭇 다르다.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탓인지 일본에는 비슷한 단체에 의한 유사한 강좌가 없었다. 단지 공민관에 의해 모든 사회 교육이 이루어질 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원과 주민자치센터,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할인점 등에서 인기 위주의 강좌를 중심으로 마구잡이식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



• 나미노소학교 가쿠라 공연(왼쪽)을 관람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원 사무국장들.

음은 반성해 봐야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사회교육이 이루어져야 계획성 있는 다양하고 치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원리를 앞세우는 대동소이한 여러 기관단체의 강좌 난립은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무상, 무원칙, 무분별로 이루어지는 3무의 사회 교육 제공으로 소중한 사회교육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더구나 극단적인 경우는 일부 인기 강사가 수강생들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넘나들며 주최측에 성과(?)만을 안겨주고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경우 또한 있어서 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교육에 대한 일원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래야 문화원이 바로 서고 문화원이 바로서야 사회 교육이 바로 서고 지역 문화가 바로 선다.

공민관 운영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벳부 중앙공민관 관장님의 자부심 넘치는 얼굴을 보며 우리도 문화원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날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벳부 중앙 공민관을 떠났다.

온천의 꽃 재배지 유노하나

공민관을 나와 한시간 여를 지났을까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가이드의 안내로 차에서 내렸다. 산의 팔부 능선쯤 될 듯싶었다. 산의 나무를 온통 벌목해서 잔디처럼 보이는 억새풀들을 심어 놓은 것이 인상적이어서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잘은 모르지만 자위대와 관계가 있다. 이른 봄 지역 마쓰리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산에 불을 질러 그 광경이 장관이라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바라보니 정말 대단한 불꽃놀이 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온천의 꽃 재배지 유노하나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와는 다른 풍경들이었다. 움집들이 모여 있었고 움집들에서는 유황내를 질게 풍기는 김들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하, 온천의 지열을 이용해서 꽃을 재배하는 모양이구나.’ 지열을 이용한다면 겨울에도 연료비를 들이지 않아도 될테니 꽃 재배에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꽃들은 이 유황 내를 잘 견뎌 내는 것일까? 움집을 들여다보니 예상과 전혀 다른 풍경이다. 어디에도 꽃은 없었다.

움막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유황을 채집하는데, 유황이 자라 올라와 그 결정(結晶)이 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 ‘온천의 꽃’ 이란다. 꽃 재배지에 온실이 없고 움집들이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사실 별것도

아닌 것을 대단한 것으로 만든 그들의 노력이 대단해 보였다. ‘천연 유향 생산지’라는 산업적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관광객들을 산꼭대기까지 유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것일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활용하는 모습은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6월 27일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배에서 일박을 한 탓일까. 일본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한 긴장감 때문일까. 오후 여섯시가 되어서는 피로감이 온몸을 역습해 오고 있었고 어느새 차는 호텔로 들어서고 있었다. 새벽 바다를 바라보며 노천탕에서 새날을 맞았다. ‘새벽 다섯시 기상, 여섯시부터 아침식사, 일곱시 호텔 출발’ 연수기간 내내 우리 연수단에 주어진 시간 계획이다. 서둘러 아침을 먹고 우리 일행은 삼일 차 일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미노소학교(波野小學校)에서의 가쿠라(神樂) 공연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소 산중에 위치한 나미노소학교(波野小學校)에 도착했을 때는 살(矢)처럼 내리 쏘던 빗줄기도 잦아들고 있었다. 산중에 있는 작은 소학교이지만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잘 지어진 학교였다. 학교로 들어서던 우리 일행은 그들의 작은 배려에 감동하고 말았다. 빗길로 약속 시간보다 30여분을 늦어서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서서 일행에게 입구에서 맞이하는 여교사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하는 한국말 인사로 우리를 반긴다. 이국에서 듣는, 아니 이국 사람이 하는 인사라서 었을까?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다. 급히 강당에 들어서자 후쿠다 교장선생님이 친절하게 우리를 반긴다.

두근거리게 하는 북소리와 함께 무대가 열렸다. 신화의 내용을 극화한 가쿠라 공연은 초등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전혀 아이들답지 않은 완성도 높은 연기를 하고 있었다. 250여년 전부터 공연되고 있다는 가쿠라 神樂은 그들의 전통 신화에 대한 내용을 극화하

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전통적인 공연을 보면서 감동하고 그들의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사회를 보는 선생님이 재미있는 제안을 했다. 학생들과 우리 일행이 가위바위보를 하고 그래서 학생이 이기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우리가 이기면 아이들이 안마를 해주는 게임을 하잔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만든 명함을 들고 우리 일행에게로 다가왔고 아이들과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했다. 어떤 이는 이기고 또 어떤 이는 지기도 했다.

그러는 일순간 혼돈! 아니 화합이었다. 어느새 아이들과 우리 일행은 하나가 되어 어떤 이는 껴안고 또 어떤 이는 볼을 부빈다. 어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안마를 하기도 한다. 그러는 새 아이들과 우리는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이 통하고 경계심이 흐트러지고 있었다. 가쿠라 공연의 북소리가 그리고 가락이 낮설지 않음과 주술사의 방울이라든가 그들이 쓴 모자가 우리의 그것과 유사함이 혈통의 인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은 매주 수요일 한 시간씩 이 공연을 연습한다고 했다. 자기 전통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부러웠다. 현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것은 무조건 무가치한 것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전통을 무시하고 멀리해 왔다.

그러나 가장 우리다운 것은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면 세계적인 것인 동시에 세계 유일의 가치를 지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우리 것 찾기에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에게는 오천 년의 역사가 있고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와 수많은 설화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 이것을 갈고 닦아서 극화하고 문화 상품화하는 일이 우리나라를 문화 대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세계인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기성화 된 문화에는 이미 식상해 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을

찾아 떠돌고 있다.

우리의 신들을 산 속에서 그리고 땅 속에서 불러 내야 한다. 박제화 된 서낭의 신들을 불러내고 옛날이야기 속에서 신들을 살려내야 한다. 어렸을 적 화장실에 가는 우리를 괴롭혔던 귀신들도 우리가 부리기에 따라서 우리를 돕는 귀신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차는 나미노 소학교를 빠져 나와 아소산 분화구로 향하고 있었다.

아! 일본 속의 백제, 구마모토(熊本)!

다시 비가 내린다. 안개가 자욱하고 바람까지 세차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활화산 분화구를 보고싶었지만 산이 험락지 않아 점심 식사만 하고는 산을 내려와 구마모토의 기쿠치로 향했다.

熊本! 구마모토라고 부른다. 구마모토 사람들은 대부분이 친한적(親韓的)이라고 한다. 지난 6월초 우리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한일 학술대회에 참가했던 이들이 이곳에 사는 이들이었는데 모두 친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음식까지도 한국적인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다. 매운 김치며 마늘까지 우리와 함께 먹는 걸 보면서 정말 이들은 우리와 뿌리가 같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

구마모토 사람들은 백제가 자신들의 뿌리라 여기고 있었다.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 여기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는 일본 속의 백제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기쿠치 성은 높은 지역은 아니지만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절벽처럼 가팔라 적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온고창생관이라 이름 붙여진 본관과 복원 건물들은 일본인들의 역사에 대한 애착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전날 기쿠치 성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시마즈 선생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하게 되었노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온고창생(溫故創生) 뜻을 곱씹으며 그들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를 배웠다. 오락가락하는 빗줄기 사이로 저녁 해가 잠시 모습을 보였다. 호텔 내에 있는 온천탕은 하루의 피로를 몽땅 풀어주는 듯했다. 본전(?) 생각에 객실내의 욕실을 버려두고 온천탕에서 샤워를 하니 기분이 그래서인지 날아갈 듯이 몸이 가볍다.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때문인지 하나 둘 탈이 나는 사람이 생겼다. 더구나 차 안은 찜통이다. 전날 에어컨을 고쳤다고 카메라폰으로 사진까지 찍어다가 보여주며 너스레를 떨던 운전기사가 의심스럽다.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전날은 비가 내려 더위를 잘 느낄 수 없었지만 마지막날은 차안이 마치 찜통처럼 더워지고 있었다. 더구나 전날까지 비가 내려 습도까지 높으니 짜증스러웠다. 가이드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에어컨은 이상이 없고 실내 온도가 20도 이하라 더 이상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단다. 운전 기사의 황당한 답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30도는 훨씬 넘을 실내가 20도 이하라니. 기사의 무성의한 답변과 태도에 화가 났다. 이 친구는 아마도 한국에 와 본적이 없는 모양이다 생각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차량들이 얼마나 성능이 좋고 얼마나 시원하고 쾌적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구마모토의 고우다 공민관을 방문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잘 정돈된 느낌이었고 공민관 안에는 읍사무소가 함께 있었다. 일본인들은 일년에 한번 이상씩은 공민관을 이용한다고 하니 공민관을 이용할 때 민원을 함께 처리하도록 한 시민들을 위한 배려인 듯 했다.

고우다 공민관은 새 건물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유아들을 위한 공간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배려되고 마을 도서관이 함께 있다. 어른들을 위

한 프로그램이 있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문화 강좌를 들을 수도 있고 요리 실습을 통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즐기기도 한다.

백제인의 후손들이라는 선입견 때문일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겹다. 달려가 왈각 포옹이라도 하고픈 충동을 느꼈다. 오랜만에 만났던 고향 친구와 헤어지는 아픔으로 구마모토를 출발하는 버스에 올랐다.

우리 문화원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강좌를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역사문화 마을 요시노가리 유적

요시노가리 유적은 야요이 시대의 유적지를 발굴 복원한 곳이다. 내게는 ‘역사란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다.’ 라는 고착화된 관념을 깨뜨리도록 해준 값진 체험이었다.

나당연합군을 대비해 쌓았다는 백제식 산성 미즈키 성터를 지나 야요이시대 요시노가리유적을 답사했다. 요시노가리유적은 약 2천년 전에 있었다는 일본 야요이시대 유적을 복원 재현한 유적지이다. 이 시기면 대략 우리의 경우 삼국이 형성되고 고구려가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시기에 해당한다. 고구려 역사 문화마을을 추진하는 중이라 내게는 더없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적지였다. 유적지의 구석구석을 보기 위해 뛰어 다녔고 더 자세히 느끼기 위해 건물의 뒤편까지 들어가서 살펴보았다. 치밀한 준비와 계획으로 만들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목적과 토루, 망루, 족장의 가옥까지 세심한 노력이 돋보였다.

그들이 내놓고 있는 사료들은 그리 신빙성이 높아 보

이지는 않았지만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유적을 복원하고 역사문화 마을로 재현해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왜곡이 결코 오늘에 급조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역사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란 역사가관이 바로 그들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인 것이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일 수 있다. 기쿠치성이 그렇고 온고 창생관이 그러하고 요시노가리 유적이 그러하다.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유적이나 유물을 단순히 보존과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사료적 가치가 있는 유적이나 유물들을 바탕으로 유적지를 복원하고 문화 상품화하고 역사 교육장화 하는 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요시노가리 유적지를 돌아보고 나오며 나는 심신수련이 이루어지고 문화체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고구려 역사문화마을을 상상하고 있었다.

귀국하는 배 안에서 전국의 문화원 사무국장들은 동지요, 형제가 되고 있었다. 남아 있는 팩 소주를 내놓고 각자의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문화원의 발전 방안을 이야기하느라 날이 밝아오고 있음도 잊고 있었다.



글 _ 김영대 | 충주문화원 사무국장

전국문화원 새로운 얼굴

전국문화원연합회 울산광역시지회장 김철 씨 선임



전국문화원연합회 울산광역시지회는 지난 7월 28일 울산 중구문화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입 지회장에 김철(金哲 58) 중구문화원장을 전원 일치로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김 지회장은 중구문화원장과 건설업체인 성전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량제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부산금정문화원장 윤석천 씨 선임



금정문화원은 지난 4월 19일 임시총회에서 신입 원장에 윤석천(尹錫千 70)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신임 윤 원장은 초대와 2대에 걸쳐 민선 금정구청장을 역임한 행정가로서 문화원 발전에 대한 많은 회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인천중구문화원장 임태관 씨 선임



인천중구문화원은 지난 6월 21일 문화원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전원일치로 추대된 바 있는 임태관(林泰寬 62)씨를 만장일치로 선

임하였다. 임 원장은 경기일보 공무부국장과 서인천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 3690지구 제2지역 총재보좌역을 역임하고 현재 출판·인쇄업체인 민정의 대표로 있으면서 인천동구예술인회와 인천한글서예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천문화원장 박정자 씨 선임



연천문화원은 지난 7월 2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두 명의 입후보자가 경선하는 가운데 박정자(朴定子 63)씨가 당선됐다.

박 원장은 그동안 연천문화원 이사로서 있으면서 생활개선협의회 연천군회장으로 활동,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

영월문화원장 유성목 씨 선임



영월문화원은 지난 6월 28일 임시총회에서 현 원장인 유성목(俞聖穆 68)씨를 새 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재선임

했다. 영월JC특우회장과 석정여자중·고등학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유 원장은 현재 단종문화제 수석부위원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양구문화원장 정유수 씨 선임



양구문화원은 지난 5월 21일 임시총회에서 두 명의 입후보자가 경선하는 가운데 정유수(鄭裕洙 54)씨가

당선됐다. 6월 23일 양구문화복지센터에서 취임식을 가진 정 원장은 건설업체인 미래개발(주)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문화원 양구읍분원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었다.

군산문화원장 이복웅 씨 유임



군산문화원은 7월 15일 임시총회에서 현 원장인 이복웅(李福雄 59)씨를 새 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재선

임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라북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 원장은 시인으로서 한국문인협회와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고흥문화원장 신만식 씨 유임



고흥문화원은 7월 19일 임시총회에서 현 원장인 신만식(申萬植 67)씨를 새 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재선

임했다. 대서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신 원장은 한국서예문화진흥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천문화원장 박동선 씨 선임



사천문화원은 지난 5월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박동선(朴東善 64)씨를 만장일치로 새 원장에 선임했다.

신임 박 원장은 한국방송공사의 차장과 부장을 거쳐 진주방송공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경남일보 객원 논설위원과 진주문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문화원 이사로 활동해 왔다.

영광문화원장 류동현 씨 선임

영광문화원은 지난 3월 31일 제35차 정기총회에서 류동현(柳東鉉 64)씨를 새 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7월 2일 내외 귀빈과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류 원장은 영광농지개량조합 이사과 새마을운동 영광군지회장, 제3대 영광군의회 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동안 문화원 이사로 활동해 왔다.

우리문화 구독문의 T. (02) 704-2311

이낙연 국회의원, 조남식 前 영광문화원장의 향토문화창달 높이 평가

이 글은 7월 2일 6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치뤄진 영광문화원장 이·취임식에서 35년 간 영광지역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진력해 온 영광문화원 조남식 전 원장에 대해 이낙연 국회의원(민주당 함평·영광)이 밝힌 인물평이다.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퇴임한 조 원장(당연합회 부회장 겸 전남도지회장)에 대한 단상을 중심으로 축사를 발췌 게재한다. <편집자주>



이낙연 국회의원 민주당 함평·영광

영광의 지역문화가 이토록 무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임하시는 조 원장의 신조인 '문화의 힘에 의한 결과물의 소산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반평생 외로운 봉사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향토문화의 진흥과 창달에 정열을 쏟아 오셨다. 따라서 실리적 가치인 '부(富) 보다 정신적 가치의 인생을 사신 분으로 영광의 향토문화보존과 전승 발전의 중심에는 항상 조 원장이 자리함으로써

'법성포 단오제' '옥당 문화제' '열린 음악회' 등 문화행사과 아울러 <옥당골 영광문화> 18호와 <옥당골 영광향토문화사료집> 27집 등 향토문화지의 발간을 통해 영광의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해 오셨다. 특히 '묘량면 효동마을 문화·역사가꾸기'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인간이 상생했던 선조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교육장으로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영광의 근·현대사 재조명 등 집필활동을 통해 우리 후세들이 역사문화의 안목을 깊고 넓게 갖도록 함양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보은, 동학 재조명 위한 마라톤대회 열려



동학군 취회지(聚會地)이자 최후 격전지인 충북 보은에서 동학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충북 보은문화원과 보은생활체육협의회는 보은동학운동을 재조명하기 위해 9월4일 오전 9시30분 동학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은읍 뱃들공원에서 출발해 동학유적지인 외속리면 장내리(취회지)와 보은읍 종곡리(격전지)를 돌아오는 이 대회는 하프(21.0975km), 미니(10km), 건강(5km) 등 3개 코스로 나뉘어 진행된다. (출처 : 문화일보)

제2차 우수 프로그램 부문별 선정 문화원

부 문	선정 지회	선정 문화원
역사문화유적 탐방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1(장애우 역사문화체험), 전남, 경남	▽노원, ▽서대문, ▽양천, ▽관악, ▽송파, 유성, ▽수원, ▽양평, ▽강릉, ▽영월, 대전, ▽부여, ▽익산, 정읍, 장수(가야역사문화), ▽해남, 포항, ▽구미, 문경, ▽창녕(외국인 근로자...), ▽경남고성(영호남 문화체험 교류), 남해
예술체험·참여	대전, ▽강원	성동, 대구동구팔공, 부평(연극속으로 떠나는 여행), 인천서구, 유성, 구리, 하남, 고창, 완도, 영주
생활문화	광주1(옛 재래장터), 전남	성동, 연제, 광주서구, 구리, 홍천, 평창, 남원, 고창
전통문화	—	종로, 강북, 부산진, ▽광주서구, 광주북구, 대전 동구1(전통생활문화 체험), 대덕, 양주, 증평, 완주, 신안, 안동, 함안(함안 문화소년단)
자연생태 체험	대전	성동, 종량, 마포, 대전서구, 의정부(철원평야로 떠나는...), 동두천, 진천, 군산, 곡성, 완도, 칠곡
예술·문학 기행	인천, 전북	인천남동, 홍천, 장흥, 완도, 창원
기타 문화체험	인천, 대전, 전북	▽금천, 광주서구, 과천, 동해, 서산, 당진, 순창, ▽해남, 포항, 상주1(천문우주관측), 예천

※▽표기 문화원은 예산 및 시행회수 조정 조건부로 선정

제1회 서울시민예술축제 전통예술제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가 직접 작품을 제작·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시상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1회 서울시민예술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 가락과 풍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예술 부문의 참가 단체가 발표됐다. 전통 예술제는 8월 27일, 28일 이틀간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진행됐으며 동작문화원 국악반을 비롯한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다.

단 체 명	대표자	단 체 명	대표자
가얏소리	김향숙	수요풍류회	정종길
국악실내악단 다향	이승은	영광우도농악 서울지역연합	유경희
금사랑 가야금연주단	고수정	전통연희악회 너름산이	강종구
동작문화원 국악반	정철기	천지음	최희훈
봉천놀이마당 굿패 빛내림	장미이	풍물굿패 삶·굿·우리	김승관
서울 풍물굿회	장현주	풍물패 풍류	김은혜
소리밭	문철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민속연구회	배열규



8개국 국외동포 청소년 전주서 전통문화 체험

전북 전주시는 “중국과 일본, 멕시코 등 8개국 해외동포 청소년과 전북 전주지역 청소년 등 200여명이 전주 한옥마을과 모악산 일대에서 8월 19일까지 일정으로 전통문화 체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복 60돌을 맞아 해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의 식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한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는 조선왕조 발상지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전주경

기전, 풍남문, 오목대, 향교, 객사, 전주역사박물관, 전동성당, 금산사 등 문화유적지를 둘러본다. 또 전통한옥(900여채)이 잘 보존된 한옥마을 안 전통문화센터와 한옥생활체험관, 공예품전시관, 술박물관 등에서 공예품과 술을 직접 만들거나 빚어보는 체험을 해보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마다 광복절을 전후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주5일제, 농어촌 활기 되찾는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300인 이상 기업, 전 공무원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농어촌에 생기가 돌아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내포녹색체험 흥성(흥성 NGT)’을 운영중인 충남 흥성군은 올해 서부면 상항리 속동마을의 ‘바지락캐기’와 서부면 어사리의 ‘대하잡기’ 등 갯벌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한 데 이어 문화관광 해설사 확대운영 및 수도권 학교·대기업 홍보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충북 농협은 도내에 10개 팜스테이 마을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등 농촌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도시민들은 괴산의 청천 사담마을, 음성 용바위마을과 생국의 능안마을, 옥천 안남 지수마을, 청원 연꽃마을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마을 찾아 휴식할 수 있게 했다.

경남 밀양시는 올해부터 매년 1억원씩 들여 전통테마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해시 창암마을 무척산 관광농원은 감자캐기 등 계절별 농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창원군 우포마을은 대합농협과 함께 ‘농촌사람 체험 대축제’ 행사를 개최해 이곳을 방문한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남해군과 합천군, 함안군은 조례까지 만들어 빈집을 정비할 경우 50만원씩 지원해주고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빈집 정보를 상세하게 소개해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남도 또한 지자체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생태·체험관광 육성에 소매를 건어 붙였다.

전남도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 등 39개 사업에 연말까지 378억원을 투입해 생태·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출처 : 서울경제신문)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전통문화 참여프로그램으로 큰 인기

전남도와 여수시가 주최한 제6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가 8월 1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8월 12일부터 3일간 여수 진남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16개국 300여명의 외국 청소년이 참가하는 등 총 5만 5000여명이 참여해 명실공히 국제행사로서 면모를 갖

췌다.

이번 축제에는 풍물놀이 경연과 전통 탈만들기, 연날리기, 팽이, 제기, 널뛰기 등 우리나라 전통 참여 체험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모았으며, 해양레포츠, 아케이트 게임, 페이스 페인팅 등도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출처 : 무등일보)

“서울의 역사·전통문화 배워요”

서울역사박물관은 9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역사와 문화, 백제시대의 서울, 백제의 토기, 문화재와 보존과학, 한국의 불교 사상, 조선시대 지도와 지도 제작, 조선시대 궁궐 건축, 조선시대 기록문화와 의궤, 서울의 근대 역사 등 10개 주제에 대해 매주 수

요일마다 분야별전문가 강연이 마련됐다.

2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이 이뤄지며 수강료는 무료다.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useum.seoul.kr)를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수강생 250명은 컴퓨터로 추첨할 예정이다. (출처 : 문화일보)

전통 제주 도예체험 행사

제주 전통도예의 맥을 잇는 제주도예원과 제주전통도예학회 주최 ‘2005 하계제주도예워크숍’이 8월 13~15일 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 제주도예원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주도무형문화재 14호 허벅장 신창현 선생과 전통 도예 경력자인 박근호, 이진강, 고원수, 이윤옥, 강신원, 김성균, 고달순 선생을 비롯 20여명의 전수생과 전수보

조생, 학생들이 전통 도예 제작 과정을 보여줬다.

대정읍 일대에 남아 있는 제주도지정 문화재인 ‘노랑굴’과 ‘검은굴’을 돌아보며 전통 옹기의 종류와 세계 유일하게 돌로 가마를 만든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도공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출처 : 연합뉴스)

한지장(韓紙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8월 5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전통 한지를 제작하는 기술인 '한지장(韓紙匠)'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하고, 류행영(73. 柳行永, 경기 용인) 씨를 그 기능보유자로 인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류씨는 지난 50여 년 간 한지를 제작해 온 장인(匠人)으로 한지의 주요 원료인 닥나무와 황촉규(닥풀)를 직접 재배해 한지를 전통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다. 특히 그는 한지의 품질개량을 위해 닥나무껍질을 삶을 때 알카리도가

높은 고추줄기를 태운 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개인적 경험을 축적해 오고 있으며, 종이를 뜨는 초지(抄紙) 과정에서는 전통 제작방법인 외발뜨기 기술을 지켜가는 등 전통 한지제작 전 과정을 충실히 재현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문화재 지정예고는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전통기술분야 발굴사업'의 신청자와 전국 시·도에서 추천된 5명의 장인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정밀조사 끝에 이뤄진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

태극기로 힙싸인 서울시청



서울시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 사회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본관 전면과 측면에 대형 태극기 1장 (가로 99m, 세로 20m)과 소형 태극기 3600장을 설치했다. 소형 태극기는 그물망에 태극기 상단을 매다는

방식으로 서로 겹치게 설치돼 바람에 휘날리도록 돼 있다.

서울시청 본관 전면과 측면에 설치됐던 태극기 3600개는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또 대형 태극기는 광복회

등 광복 관련 단체중 원하는 곳에 기증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 앞에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많은 시민들이 사진을 찍는 등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태극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인, 세명 중 한명 한국하면 ‘김치’

중국 소비자 세 명 중 한 명은 ‘한국’ 하면 ‘김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국 북경 소재 북경건흥리서치엔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6~7월 북경과 상해지역 소비자 5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28.5%가 “한국하면 김치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불고기(20.6%), 한류(18.2%), 비빔밥(11.1%)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64.1%가 한류가 한국식품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로 구매하는 한국식품으로는 김치(30.5%), 장류(12.5%), 면류

(12%), 김(10.7%), 음료(10.7%), 인삼(6.1%) 등의 응답이 나왔다.

중국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시 주로 맛(24%), 가격(21%), 위생(21%), 브랜드(15%)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구매 장소로는 대형할인매장(37%), 슈퍼마켓(33%)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식품에 대한 이미지는 맛이 좋다(35.6%), 위생적이다(20.3%)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비싸다는 인식도 있어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상 가격 유지시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프로모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 머니투데이)



제3회 조치원 복숭아 축제 성료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충남 조치원을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이틀동안 지역민, 출향인사, 대도시 주

민 등 8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축제기간 중 100년 전통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열린 ‘복숭아 품평회’에는 30개 작목반에서 60점이 출품돼 당도·크기·과형·식미 등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대상의 영예는 흥백 복숭아를 내놓은 진영군씨(남면 수산리)가 차지했다.

한편 충남 연기군은 2010년까지 년차사업으로 관수 및 배수시설, 품종 개량사업, 소형 관정개발 등 5개사업에 53억8천여만원을 지원·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뉴시스)

국립고궁박물관, 성황리 개막

국립고궁박물관이 광복 60주년인 8월 15일, 서울 경복궁 안 옛 국립중앙박물관 자리에서 성황리에 문을 열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해찬 총리의 축사를 통해 “우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던 드높은 기개와 청빈의 선비정신을 현대 한국인의 삶에 되살려야 한다”며 고궁박물관은 “앞으로 좀더 많은 궁중문화재를 수집하고 특히 불행한 시대에 유출된 많은 문화재들을 반환받아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부끄럽지 않은 박물관으로 도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을 연 고궁박물관은 9월 30일까지 45일 동안 무료로 개방되며

이후에는 유료관람으로 전환한다. 문화재청은 성인 2천원, 소인 1천원을 관람료로 책정해 놓고 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정해졌다.

2007년 전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박물관은 올해는 1개층만 약 800평 전시공간만 문을 열었다.

이들 전시공간에는 조선왕조 어보와 어책, 각종 기록화, 중요제례·궁궐건축·왕실문화를 생생히 보여주는 700여 점에 달하는 왕실 보물이 관람객을 맞기 시작했다.

한편 개막식에 맞춰 특별전시실에서는 조선시대 백자 달항아리 특별전이 아울러 문을 열었다.

(출처 : 연합뉴스)

경상북도, 제4회 게임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경상북도는 지역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게임시나리오를 발굴, 게임제작으로 연결하고자 게임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게임시나리오 공모전은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후원하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원장 박광진)이 주관하는 행사로 학력, 연령, 성별, 지역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단 응모 소재는 신라·유교·가야문화권의 설화, 전설, 역사 등 경북의 전통문화에 한정된다.

응모작은 오는 9월말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며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

사를 거쳐 10월말에 입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과 우수작품에 대한 작품설명회는 11월초에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 대상 1명에게는 문화관광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금상 2명과 은상 3명에게는 경상북도지사상과 상금 각 300만원과 200만원 등 모두 17편에 2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dip.or.kr) 또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CT사업부 이재광 053)651-98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뉴스와이어)

마산결핵요양원을 배경으로 한 '산장의 여인'

마산결핵요양원 女환자 소재 반야월 작사
공연 중 슬피 우는 사연 알아내 노랫말 지어
'산장'은 폐결핵 전염 막기위한 격리병동 지칭
청주출신 처녀가수 권혜경이 불러 크게 히트

(1절)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차곡차곡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곡, 여자가수 권혜경(올해 나이 74세)이 노래한 <산장의 여인>은 웬지 모르게 쓸쓸하고 애잔한 느낌이 든다. 4분의 3박자로 슬로우 왈츠풍의 이 노래는 '가고파의 고장' 경남 마산시에 있는 국립결핵요양소(지금은 국립마산결핵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대중가요다. 요양소는 마산에서 진주 쪽으로 가는 바닷가 국도변에 있는 곳으로 잔잔한 합포만 바닷물이 바로 앞에 일렁이는 해변가 산 속에 자리잡고 있다. <산장의 여인>이 마산을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걸 아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산장이 뭘 뜻하는지 궁

(2절)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풀벌레만 애처로이 밤 새워 울고있네
행운의 별을 보고 속삭이던 지난날의
추억을 더듬어 적막한 이 한밤에
임 뵈을 그날을 생각하며 쓸쓸히 살아가네

금해하는 사람들도 적잖다.

이 노래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음악인 반야월 선생(1917년생)이 6.25전쟁 피난시절 자신의 고향 마산에서 방송활동을 할 때 작사한 가요로 유명하다. 본명이 박창오인 반 선생은 지금은 KBS창원총국으로 확대개편 됐지만 그때 마산시 완월동 마산여고 아래 있었던 KBS마산방송국의 문예부장으로 위문공연을 많이 다녔다.

반 선생이 어느 날 마산 가포동에 있는 국립결핵요양소로 위문공연을 갔다. 진방남이란 연예명으로 노래를 취입, 가수활동도 한 그는 그날 국립결핵요양소 무



現 국립마산결핵병원

대에서 환자와 보호자, 요양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대표곡 중 하나인 <불효자는 읍니다>를 열창하고 있었다. 무대에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었던 반 선생의 눈길이 우연히도 관중석 맨 뒤쪽으로 가서 멈췄다.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에 창백한 그림자를 드리운 하얀 소복차림의 여인이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흐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 여인의 흐느낌은 반 선생의 가슴을 저몄다.

반 선생은 자신의 저서 <나의 삶, 나의 노래>에서 ‘그 소복의 여인을 보는 순간 아련한 쓰라림 같은 게 가슴에 와 닿았다’고 회고했다.

반 선생은 그때의 인상이 머리 속에 하도 강렬하게 남아 공연 뒤 요양소직원에게 ‘그 여인이 하염없이 우는 사연’을 물어오라고 했다. 역시나 답변엔 가슴 아픈 사연

이 사려있었다. 짐작했던 대로 ‘그 여인은 사랑의 큰 상처를 입고 몸쓸 병이 가슴에 퍼져 소나무숲 우거진 산장병동에 격리요양 중’이란 얘기였다. 폐결핵에 걸려 다른 사람들에게 옮지 않도록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반 선생은 애처로운 여인의 사연을 듣고 상념에 젖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의 머리 속엔 좀체 지워지지 않은 ‘공연 때의 소복 입은 여인’이 떠올랐고 때마침 태평레코드사에서 함께 일했던 작곡가 이재호 선생도 폐결핵을 앓고 있다는 생각이 번쩍났다.

반 선생은 곧바로 노랫말을 만들어 작곡가가 이 선생에게 곡을 붙여주도록 넘겨줬다. 가사를 받은 이 작곡가는 동병상련의 마음에서 심혈을 기울여 곡을 완성, 신인가수 권혜경에게 줬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노래가 바로 유명한 <산장의 여인>이다.



노래는 한국전쟁 후 암담한 세월 속에 살고 있던 국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방 송을 타면서 히트곡이 됐고 권혜경은 잘 나가 는 가수로 자리 매김했다. 권 씨는 노래를 부 르면서도 가요탄생과정이 몹시 궁금했다. 망중한이라 했던가. 바쁜 권 씨에게도 공연이 빈 날이 있었다. 반 선생에게 문안인사차 간 권씨는 ‘선생님! 왜 저에게 이토록 쓸쓸한 노 래를 주셨나요? 제가 꼭 산장의 여인처럼 고 독하잖아요’란 질문을 해 쓸쓸한 여운이 남

았다고 반 선생은 회고했다.

노래 속에 나오는 산장은 마산시 가포동 옛 가포해수욕장 부근 산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필자가 마산중·고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단 체 봄철 송충이를 잡으러 갔던 곳이기도 해 감회가 새롭다. 요양소 옆엔 군병원과 마산 MBC 송신탑이 우뚝 서있고 조금 더 가면 가 포유원지가 이어져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권씨는 교도소위문공연 등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1951년 서울 대 음대(성악 전공)를 졸업, 3년간 조흥은행 에서 일하다 가수의 길로 뛰어든 그는 연예 계 데뷔 후 짝 짜인 스케줄에도 그늘진 곳을 찾아 노래를 부르며 아픔을 달래줘 눈길을 끌었다.

충북 청주출신인 권 씨는 1956년 서울중앙방 송(지금의 KBS) 전속가수로 선발되면서부터 매달 4~5회 교도소, 소년원, 나환자촌 등을 찾았다. 데뷔 20일만에 <산장의 호수>로 스타덤에 오르는 분주함 속에서도 어린 시절 어 머니를 따라 불우노인들에게 떡을 돌리던 마

〈산장의 여인〉은 한국전쟁 후 암담한 세월 속에 살고 있던
국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방송을 타면서 히트곡이 됐고
권혜경은 잘 나가는 가수로 자리 매김했다.

음으로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쓰다듬었다.
〈호반의 벤치〉 〈물새 우는 강 언덕〉 등의 히트곡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권 씨는 1960년대 초 후두암, 심장판막증 등 10여 가지의 합병증 진단을 받고 대중의 시야에서 서서히 멀어졌다. 실의에 빠져 4번이나 자살을 꾀하다 불교에 입문, 마음의 평정을 찾고 완치할 수 있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1천여 회 강연, 노래봉사에 매달렸다. 그의 숨은 선행은 장학금 전달, 복지시설후원 등으로 이어져 전국의 재소자나 불우청소년들로부터 ‘치녀할머니’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첫사랑 실패 후 독신으로 살고 있는 그는 지금은 고향(청주시) 부근의 한 조그만 암자에

서 요양하며 은둔생활중이다.
또 작사가 반 선생은 서울 등촌동 사무실에서 가요계 원로로 활동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 한편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그 ‘산장의 여인’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녀에 대한 자세한 후일담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지금은 몸과 마음이 완쾌됐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궁금할 뿐이다.
반 선생의 말처럼 혹시나 캄캄한 밤하늘 어느 별 아래서 이 노래를 들으며 슬피 울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 산장의 여인은 노래주인공으로 영원히 등장할 것이고 만약 병이 나아 살아있다면 이 글을 읽고 추억 어린 그 옛날 마산에서의 생각에 젖어 있지는 않을까.



글 _ 왕성상 | 뉴시스 부국장

필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남인수 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별없는 마산항〉 〈마산포 순정〉 등을 취입했고 기자가수 1호로 sbs 등 방송출연과 글을 쓰고 있다.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등록번호 865호) 소속. wss4044@hanmail.net



옥포에서 노랑까지 亂世(난세)에서 救國(구국)까지

성웅 이순신의 발자취를 찾아서

충무공의 유적을 쫓아 역사 기행길에 오른다.
아무래도 첫 방문지는 현충사다. 아산 백암리 방화산 기슭에 자리한 현충사는 충무공의 위엄만큼이나 넓고 단아하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이 서울에서 이주해와 그의 나이 32세 되던 해 무과급제 하기까지 근 20년 이상을 살았던 곳이다.
파랗게 잔디가 잘 조성된 현충사 경내에는 본전, 옛집, 활터, 유물관을 비롯해서 충무정과 충무공이 극진히도 사랑했던 셋째 아들 이면의 무덤이 있다.
아이와 함께라면 본당에 경배하고, 유물전시관에 들러 차분히 공의 유물과 유품들을 설명해 주어도 좋을 듯하다.
그리 넓지 않은 유물관에는 장검, 옥로, 요대, 난중일

기, 서간첩, 명조팔사품 등의 유물과, 각종 교지, 거북선 모형 및 해전 무기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천지현황포, 호준포 등 각종 포와 승자총통, 비격진천뢰, 유적사진, 비문타본, 해전도벽화 등이 공의 흔적을 남김없이 전해주고 있다.
'칼의 노래'를 집필한 김훈은 공에 대한 글을 쓰며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이 충무공의 칼만 바라보고 갔던 적도 있다고 했다.
공이 항상 벽에 걸어두고 보며 정신을 가다듬었던 장검의 칼자루엔 공이 친필한 검명이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三尺誓山河動色 一揮掃蕩血染山河
(삼척서천산하동색 일휘소탕혈염산하)

세계의 명장(名將)하면 누가 떠오르는가?
 세계사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몽고제국의 칭기스칸..
 그리스에서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적국이 인정할 정도로 뛰어났던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중국정부가 인정한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장 한신..
 위나라와 오나라를 벌벌 떨게 했던 초나라 장수 제갈공명..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졌던 독일장군 롬멜..
 카이사르, 광개토대왕, 살라딘...

아마 우리의 기억으로 세계 명장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름들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허전함이 없지 않다.
 바로 그 이름 이순신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 해전사에 그 이름도 더 높은 성웅 이순신 말이다.

‘석자되는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물이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 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

옥포해전에서 노량해전까지 승리의 역사

450여 년 전 공이 마셨을 우물물(충무정)을 약수 삼아
 시원스레 들이키고 돌아나오니 벌써 반나절이 흘렀다.
 다음 발길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선뜻 발길을 옮기기
 전에 공의 연대기를 살펴보기로 했다. 나고 자람은 두
 고서라도 그의 해전사만으로도 한참을 읽어야 한다.
 임진왜란 이후 공이 해상에서 싸워 첫 승리를 거둔 싸
 움은 옥포해전(1592. 5. 7)이다.
 이때가 공의 나이 48세. 장검과 그의 나이와 무거운
 갑옷을 상상하면 ‘어떻게 싸웠을까?’ 실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 옥포는 현재의 거제 옥포를 말한다.
 같은 해 5월 29일에 사천포해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6월 2일에는 고성의 당항리 앞바다에서 당항포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 7월 8일에는 진주성대첩, 해주대첩과 더불어 ‘임
 진왜란 3대 대첩’으로 기록된 한산도대첩에서 왜의 수
 군을 거의 궤멸시켰다. 이때 그 유명한 전법인 학익진
 이 등장하고 육지에서 계속된 패전으로 사기가 저하되
 어 있던 조선군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아울
 러 남해안의 제해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5년 뒤 공의 나이 53세에 명량해전을 승리
 로 이끌었다. 명량해협은 지금의 진도와 해남 화원반
 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말한다. 해남에서 진도방향으
 로 30여Km를 달리다 보면 울돌목이란 곳이 나온다.



▲현충사 전경

울돌목은 말 그대로 바닷물이 울면서 돌아 나간다는 의미로, 오늘날도 그곳의 물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급류가 휘감아 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순신은 이 물길의 흐름을 알고 바다 밑으로 쇠줄을 놓아 왜군의 함대가 물길을 타고 빠르게 진격할 때는 쇠줄을 당겨 함대가 쇠줄에 걸리게 하여 그 흐름을 막고, 조선수군이 진격 할 때는 쇠줄을 풀어 물길을 타고 빠르게 공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전투에서 왜군 전함은 122척이 수장되고 8,000여 명의 왜병이 전멸했다. 부근에 있는 ‘피섬’은 이때 왜군이 흘린 피로 섬전체가 뒤덮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속설이 있다.

이어 1598년 그의 나이 54세에 공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을 맞았다. 승리한 싸움이지만 이때 공은 적의 유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했다. 노량은 지금의 남해대교 부근을 말한다. 이 싸움과 함께 정유재란도 끝이 났다.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나라에 대한 충성을 온몸으로 실현한 공의 생애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깊이

생각할수록 가슴 깊이 눈물이 맺힌다.

한 평생을 전란 속에 살고, 전란 속에 목숨을 바친 공이다. 구국의 일념으로 싸웠건만 모함은 너무도 쉽게 공을 백의종군하게 하였다. 자랑해도 다 모자랄 아들 이견만 백의종군 소식을 끝으로 공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어머니의 주검을 바라본 공의 가슴은 또한 어떠했을까?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한 공은 저런 가슴으로 이렇게 읊조렸다 한다.

“충성을 다 하렸더니 죄가 이에 이르렀고, 효성을 바치렸건만 아버이 마져 가 버렸네”

불멸의 해전사를 찾아서 남해로

멀어져가는 현충사 넓디넓은 주차장을 뒤로하고 다음 기행지를 거제 옥포로 정했다. 충무공의 혼이 서려있는 곳은 역시 남해바다로, 거제, 남해, 사천, 통영 그리고 진도 앞바다 일대가 공의 전적지다.

대전통영간 쪽 뺨은 고속도로를 따라 3시간 여 만에 거제에 다다랐다.

三尺哲夫山河動色 一揮掃蕩血染山河
 (사천서천사하동색일회스탕혈염산하)
 선자판기관보관하늘옥포대첩하노사과물
 이판나왕명환려슬여버리니파가
 가산의비비어다.



▲이순신 생가



▲옥포대첩 기념관

먼저 거제시 옥포 2동에 위치한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들렀다. 이곳에는 공의 첫 해전인 옥포대첩을 기리는 기념관이 건립되

어 있다. 파랑포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옥포대첩 기념공원내 기념관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각종 대포, 철탄, 거북선 절개모형에서 장검과 징비록 등의 유품이 있고 기념관 밖으로 옥포대첩 기념탑이 우뚝 서 있다.

1592년 당시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 장군은 경상우수사 원균과 함께 임란이후 첫 해전의 승리를 이곳 옥포만에서 거둔다. 임란초기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던 왜는 이때 왜선 50척 중 26척이 격침되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옥포대첩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은 대우조선이 자리하고 있다.

차를 돌려 거제시를 빠져 나와 1시간 가량을 달려 통

영시 명정동에 위치한 충렬사에 들렀다.

충렬사는 임진란이 끝난 7년 후 이운룡 제7대 통제사가 선조의 왕명을 받들어 공의 위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300년 수령의 동백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연이어 서 있다. 이곳에는 정침을 비롯하여 내삼문, 동제, 서제, 송무당, 외삼문, 비각 6동, 전시관, 홍살문 등 24동의 건물이 있고, 명조팔사품 진품이 보관되어 있다.

충렬사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세병관에도 들렀다. 세병관은 이경준 제6대 통제사가 1605년에 창건한 객사로서 통제영의 상징적 건물이다. 공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써 세병관이라는 이름은 만하세병(挽河洗兵), 즉 ‘은하수를 끌어와 병기를 씻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병관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목조건물로서는 경복궁, 경회루, 여수 진남관과 함께 규모가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하다.

차를 통영항으로 돌려 통영여객선터미널에 이르렀다. 학익진으로 유명한 한산대첩의 승전지인 한산도로 가기 위해서였다.



▲창선대교

한산도는 통영앞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통영남망산공원에서 바라보면 거제도과 함께 나란히 보인다. 통영에서 유람선이 수시로 다니고 있고 채 30분이 못되어 다다를 수 있다. 유람선이 한산도 입구에 거의 다다를 무렵 한산앞바다와 한산섬 산 허리에 놓인 거북등대를 동시에 볼 수 있다.

한산섬은 선조26년에서 30년까지(1593~1597) 수군의 본영으로 삼아 재해권을 장악하고 국난을 극복한 중심지였다. 그러나 정유재란 때 원군의 패전으로 한산진영이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어 버렸다. 이후 영조 15년(1739년)에 제107대 통제사인 조경이 이곳에 유허비를 세우고 운주당 옛터에 집을 짓고 제승당이라는 친필 현판을 걸었다.

이 곳에는 현재 충무사, 제승당, 수루, 한산정 등이 있고, 주변으로는 수려한 풍광이 공의 우국충정의 식귀에 어울리게 펼쳐져 있다. 또한 조선 수군 본영의 옛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 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갈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당항포에서 최후의 결전지 노량까지

한산섬을 둘러보고 통영에서 출발해서 마산방향으로 30여분쯤 달리면 회화검문소가 나온다. 검문소 앞 국도변에 서있는 이정표를 따라 우회전해서 10분쯤 더 달리면 호수 같은 바다를 끼고 호젓하게 조성된 당항포관광지에 이를 수 있다.

당항포해전 대첩지인 이곳은 고성군 회화면과 동해면 사이의 당항만에 위치하고 있다.

1981년 공의 멸사봉공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고자 군민들이 뜻을 모아 조성한 이곳은 1984년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개발 후 1987년에 개장하였다.

이 곳에는 이충무공 기념사당을 비롯해서, 기념관, 대첩탑이 있고, 해양레포츠시설 및 가족놀이 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다.

특히 당항포해전관, 거북선체험관에서는 임란당시의 모습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좋다. 이밖에 동물류의 박제와 공룡알, 어패류화

거처 떠나 머무는 곳은
 더없이 추하여 이면 마귀가
 막다가 간다.
 나라를 위해 대의의 죽음이
 어찌 한이 남으리오.
 타고났던 천성인 것을
 공께서 가신 뒤 어찌
 공께서 가신 뒤 어찌 바다
 어룡들이 기어 올차 있고,
 산야의 온갖 금수들은
 슬픔 못 잊어 울고 있다.



▲ 위 : 천자총통의, 아래 : 조경이 잘 되어있는 현충사 경내

석 등을 전시한 자연사관과 야생화와 어우러진 자연조각공원 및 수석관으로 구성된 자연예술원은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육공간이 되고 있다.

공의 마지막 전승지이자 최후를 맞이했던 노량해전지인 남해까지는 당항포관광지에서 출발해서 2시간이 채 못 미쳐 닿을 수 있다.

사천에서 남해대교까지는 2003년 새롭게 개통된 삼천포대교(창선대교)를 이용하면 된다. 남해바다를 왼편에 끼고 구불구불 해안길을 달리다 보면 멋진 풍광과 평화스러움이 전란의 아픔과 대조되어 더욱 서럽다.

공은 알았을까? 노량에서의 해전이 마지막이 될 줄을... 1598년 11월 18일(음력) 밤 공은 노량수로와 왜교(倭橋)에 집결한 500여척의 왜선과 결전을 치렀다. 전투는 19일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200여척의 왜선을 격파했다.

그러나 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관음포로 도주하는 왜선을 추격하던 중 결국 왜군의 총탄에 쓰러졌다.

슬픈 그날의 역사를 저 바다는 기억할 것인가?

관음포 앞바다에는 그날의 기억을 영원히 놓치지 않으려 사적 232호로 지정된 ‘관음포 이순신 전몰 유허’가 있다.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배향한 이락사(李落祠)의 비문에는 그를 잃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거처를 물결을 건너 충렬사에 이르니
 고결한 충혼이 머무는 곳 바다는 깊구나.
 나라를 위해 대의에 죽었으니
 어찌 한이 남으리오.
 타고났던 천성인 것을 공께서 가신 뒤
 아직도 바다 속 어룡들은 노기에 차 있고,
 산야의 온갖 금수들은 슬픔 못 잊어 울고 있다.’

비록 바쁜일정이긴 하였지만 너무도 많은 것을 되새길 수 있었던 여정이었다.

이락사 비문의 의미를 가슴깊이 되새기고 또한 공의 충효사상에 다시한번 고개 숙여 절하며, 충무공유적답사를 이쯤에서 마친다.

글·사진 _ 김효용 | 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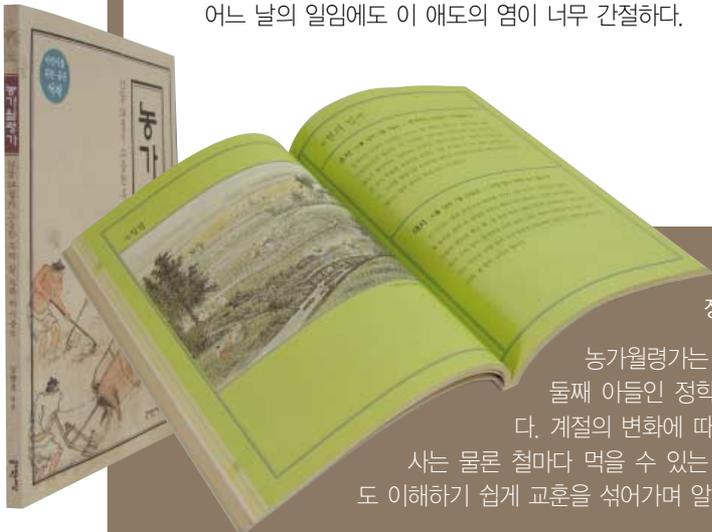
악인열전 | 허경진 엮음 (한길사)

우리 역사에 명멸했던 음악인들의 삶과 예술적 자취, 그들을 둘러싼 문화적 동향을 한 자리에 소개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악인들이 세상과 교감하고, 예술적 이상을 실현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전기이지만 각편은 한 인간의 일생을 차례로 배열하는 대신 음악과 관련된 일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빈 방에 달빛 들면

송시열 · 이인상 외 지음/유미림 · 강여진 · 하승현 옮김(학고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배우자의 죽음'이라 한다. 조선시대를 살다간 선배들은 '배우자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책은 조선 선비들이 아내를 떠나보내며 지은 제문(祭文) 49편을 묶은 것이다. 한 남편이 한 아내를 떠나보내는 수 백 년 전 어느 날의 일임에도 이 애도의 염이 너무 간절하다.



농가월령가

정학유 지음/김영호 엮음 (꿈이있는세상)

농가월령가는 200여년 전 조선 후기 헌종 때 정약용 선생님의 둘째 아들인 정학유 선생님이 당시 농민들을 위하여 지은 노래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농사와 세시풍속, 놀이, 행사는 물론 철마다 먹을 수 있는 제철 음식과 명절 음식을 월별로 나누어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교훈을 섞어가며 알려주었다.



꽃들의 웃음판 | 정민 지음 (사계절)

한시로 읽는 사계절의 시정 『꽃들의 웃음판』은 120여편의 아름다운 한시를 예민한 감수성으로 풀어냈다. 한시의 미학,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삶의 깊이와 진정 소중한 가치들을 세심하게 길어 올렸다. 번역에 정확성을 기하면서도 우리말의 운율마저 집요하게 살려낸 저자의 노력이 보인다. 접근하기 어렵고 상징으로 가득한 난해한 한시가 쉬운 문제로 다시금 다가온다.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 다쿠가와모토 지음/김하경 옮김 (글뿌리)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가지 일만 잘해서는 메이저가 될 수 없다’, ‘빨리 피는 꽃이 늦게 피는 꽃보다 좋다’, ‘꿈을 버리고 전략을 세워라’, ‘불공평한 것이 당연하다’

저자는 아마존과 메이저리그에서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통해 터득한 삶의 지혜를 저술하고 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마인드, 글로벌 환경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노하우들을 한편의 수필처럼 기술하고 있다.



다시 찾은 백제 문화 | 엄기표 지음 (고래실)

삼국시대 한반도 서쪽에 조용히 머물러 있던 나라 백제. 700년 백제 역사의 밑바닥에서 막 건져 올린 ‘파닥 파닥’ 싱싱한 이야기들을 이 책은 담고 있다. 출신 지역으로 성을 결정 하던 백제 시대, 남자들만의 휴대용 소변기가 있었고, 백제사람들도 다리미로 옷을 다려 입고 바둑, 장기를 즐긴 일, 문신을 한 일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일반인들이 궁금해 했던 백제사를 사진과 함께 풀어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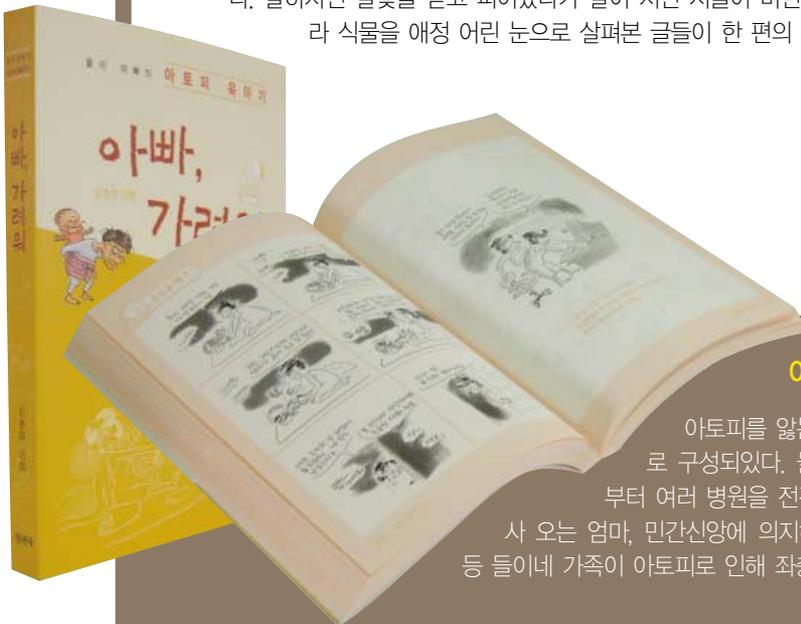
팔죽 할머니

권정생 · 주평 외 지음/임지연 엮음 (우리교육)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나오는 짧은 '희곡' 읽기 시간은 띄어 읽기, 끊어 읽기, 정확하게 발음하기, 호흡 지키기, 감정 살려 읽기 등 복합적인 언어 능력을 길러준다. 또 희곡이라는 장르는 문학으로부터 멀어진 아이들을 책으로 이끌어 준다. 『팔죽 할머니』는 소리내 읽는 즐거움을 안겨주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극본으로 활용하기 부담이 없는 편집 디자인, 무대장치, 등장인물 분석 등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일러스트레이션을 넣었다.

아름다운 식물 이야기 | 정영호 지음 (우리글)

우리나라 식물분류학의 기초를 세운姑 정영호 교수가 생전에 식물에 관해 썼던 글을 모은 학술서다. 서정적인 낭만을 가득 풍기는 달맞이꽃은 저녁 어둠과 더불어 피었다가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시들어 버린다. 말하자면 달빛을 받고 피어났다가 달이 지면 시들어 버린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식물을 애정 어린 눈으로 살펴본 글들이 한 편의 수필처럼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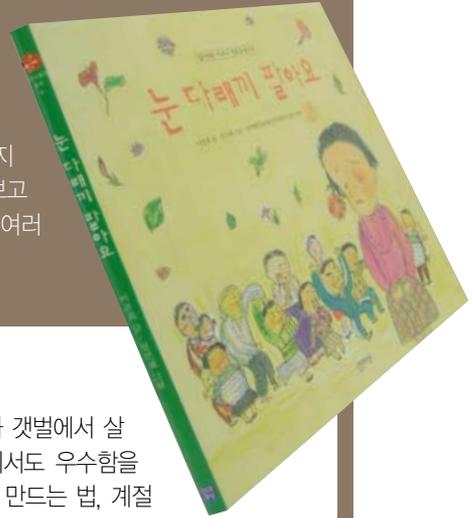


아빠, 가려워 | 김충희 만화 (청년사)

아토피를 앓는 저자의 딸 들리와 함께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되었다. 들리가 태어나 아토피를 앓게 되는 시점부터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모습, 아토피에 잘다는 것은 모두 사 오는 엄마, 민간신앙에 의지하는 어머니와 부부가 겪는 세대간 갈등 등 들리네 가족이 아토피로 인해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눈 다래끼 팔아요 | 이춘희 지음 (언어세상)

눈에 생기는 부스럼 '다래끼'를 얼레빗, 물고기 그림, 돌멩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고 의기소침해진 아이의 마음을 달래 주었던 옛 사람들의 지혜를 들려준다. 불기운에 찌어 뜨거워진 질경이를 아픈 눈시울에 붙여도 보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랐다고도 하는 민간요법들이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 옛 사람들의 지혜를 엿 볼수 있다.



젓갈네 식구들 | 백명식 지음 (삼성당)

우리 전통맛 찾기 시리즈 중 세 번째 편이다. 바다와 갯벌에서 살던 생명체가 변한 젓갈이 맛에서 뿐 아니라 영양에서도 우수함을 알려주고 있다. 동화를 비롯하여 젓갈의 유래, 종류, 만드는 법, 계절별로 담가 먹는 젓갈, 지역별로 담가 먹는 젓갈, 좋은 젓갈 고르는 법 등에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전시소식

엄옥경 개인전

전통적 향기를 그리는 작가로 널리 알려진 엄옥경(42)씨의 제5회 개인전이 갤러리수용화에서 대상 작가 초대전으로 열린다. 작가는 2004년 제1회 글로벌미술대전 대상 수상작가로 금번 초대전은 그 동안 보여 주었던 "전통적 향기속으로"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적 전통미의 탐구를 통한 자수, 민화문양 등 민족의 생활, 사상, 문화로 자리잡은 상징적 표현양식과 발복의 기원이 깃든 주제들을 섬세한 필치로 다루고 있다.



평면의 아크릴 재료와 스템핑, 전사, 드로잉 기법으로 선보이는 이번 작품전은 염원과 신앙, 철학적 관조가 담긴 한국 전통미의 현대적 변용으로 급속한 문화 이행속도와 일회성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내면에 흐르는 미감에 대한 사색과 정체성을 일깨운다.

• 갤러리수용화(2005. 9. 7~9. 13)
서울 종로구 관훈동 18번지 2F.
(02)730-5077

우리문화

- 발 행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 소 : 우)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 www.kccf.or.kr
전 화 : (02)704-2311~3
팩 스 : (02)704-2377
- 등 록 : 라36627(1984.7.12)
- 발행·편집인 : 권용태
- 편집주간 : 채강희
- 기획팀장 : 강민철
- 편집&디자인 : 컬처플러스
우편번호 : 100-013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24-3
제복빌딩 303호
홈페이지 : www.cultureplus.com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 인 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48-73
전 화 : (02)2275-8106
팩 스 : (02)2275-8107
정 가 : 3,000원

July · August 2005 Vol.177

‘우리문화’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고는 우편이나 팩스,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주십시오)

발행처 :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편집실 : 우)100-013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4-3
제복빌딩 3층 컬처플러스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E-mail : cultureplus@hanmail.net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합니다.

우리 문화 속의 성과 로맨스

“사랑한다면 나이를 묻지마라”(上)

“누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런 대화를 엿듣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더이상 놀라지 않는다. 이름하여 ‘연상녀 연하남’ 커플문화가 이미 우리 결혼문화 한 가운데로 자리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런 신세대 문화의 기폭제 구실을 했던 이는 다름아닌 한 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 세인들의 관심에서 사라진 최진실이다. 10여년전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카피로 엑스트라에서 일약 대스타로 변신한 최진실은 몇해 전 자신보다 무려 다섯 살이나 연하인 야구선수 조성민과 화족을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커플의 결혼 생활은 슬하에 자녀까지 뒀지만 얼마 못가 결국 이혼 소송으로 얼룩져 버렸다. 이는 신세대 결혼문화에 또 하나의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표적 연상녀 연하남 커플의 이혼은 이미 우리들 곁에 빠르게 자리잡은 신 결혼 풍속을 막지 못했다.

연하남을 택한 연예인은 최진실 말고도 수두룩하다. 황신혜, 김미숙, 송채환 등등. 특히나 모든 멜로 드라마가 ‘연상녀 연하남’ 구도를 하나씩 양념으로 집어넣고 있다. 최근의 드라마 주인공 ‘삼순이 삼식이’도 그렇다.

그러나 ‘연상녀 연하남’ 커플의 유래를 살펴보자면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고려시대. 원나라는 여공(女貢) 5백명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1276년(충렬왕 2년) 국가에서는 그 이름도 불명예스러운 ‘과부처녀추고별감(寡婦處女推考別監)’을 설치해 조공으로 바칠 여자를 각 도에서 구한다.

딸을 둔 부모들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던 부모들은 서둘러 시집을 보냈다. 신랑의 나이는 파질 형편이 아니었다. 대개 신부가 신랑보다 한두살내지 대여섯살 정도 많았다. 이런 조혼 풍속은 19세기말, 20세기 초까지 오래도록 지속된다.

어린 신랑 친구 : “김서방 있냐?”

아주머니 : “응, 안에 있어요, 싸우지 말고 잘 놀아야 해요”

어린 신랑 친구 : “아주머니, 오늘은 뭣하고 놀지?”

아주머니 : “누룽지를 싸 줄 테니 뒷산에 가 놀도록 해요”

어린 신랑 친구 : “오오나”

‘한국학’의 대가 이규태씨의 명저 ‘한국인의 성과 사랑’ (문음사)에 나오는 한토막의 대화이다. 19세기말 조순이라는 열일곱살 난 처녀는 10년 연하인 일곱 살난 신랑과 결혼한다. 신랑은 큰 누님같은 아내를 ‘아주머니’라고 부른다. 신랑의 친구들도 ‘아주머니’라고 부른다. 그러나 으레 말투는 반말이다. 비록 나이는 어렸어도 지아비요, 지아비의 친구들이니 것이다.

그런데 이들 연하남 연상녀 부부들에게는 밤마다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글 _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mckang999@hanmail.net